
碩士學位 請求論文

1930年代 大衆小說의 讀者 共感要素에
關한 研究

- 「흙」 「常綠樹」 「질레꽃」 「殉愛譜」를 中心으로 -

指導教授 文 聖 淑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白 雲 柱

1996年 8月

1930年代 大衆小説의 讀者 共感要素에 關한 研究

-「흙」 「常綠樹」 「질레꽃」 「殉愛譜」를 中心으로-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1996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白 雲 柱



白雲柱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1996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김성숙
김성숙
김성숙

<抄錄>

1930年代 大衆小說의 讀者 共感要素에 關한 研究

- 「흙」, 「常綠樹」, 「찔레꽃」, 「殉愛譜」를 中心으로 -

白 雲 柱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指導教授 文 聖 淑

이 연구는 1930년대 장편소설 가운데 '농촌귀향 문제를 다룬 소설'과 '연애소설'에 나타난 독자 공감의 요소를 밝히는 데 주력한 것이다. 연구대상 작품으로는 이광수의 <흙>과 심훈의 <常綠樹>, 김말봉의 <찔레꽃>과 박계주의 <殉愛譜>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당시 각종 신문에 연재되었던 많은 대중소설들 중에서도 특히 이 작품들은 인기리에 구독되다가 단행본으로 간행되거나 극화되어 상연되었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작품들로서 독자의 수용적 측면을 다루기에 적합하다고 보아 선택한 텍스트이다.

1930년대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일제의 통제가 가일층 심해져서 우리 민족의 생활이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소설사적으로는 양적 질적으로 획기적으로 발전해 나갔던 시기이기도 하다. 이 시기 소설의 다양성에 비추어 볼 때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은 작가의 의도나 작품의 주제 또는 작품의 시대사적 의미 파악에 치중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전반기의 연구 풍토는 리얼리즘 일변도로 흘러 연구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기에 이르렀다.

이 글은 1930년대 소설 연구가 작가론, 작품론으로 매우 다양하고 심도있게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수용적 현상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된 바 없음에 착안하여, 독자 공감의 요소를 중심으로 장편소설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농촌귀향 문제를 다룬 소설 가운데 <흙>과 <상록수> 두 편을 대상으로 각각 '한 시골뜨기의 영웅적 변신'과 '농촌계몽의 귀감'의 공감적 틀로 분석하였다. <흙>은 무엇보다도 신분상승적 출세와 농촌시혜자로서 영웅적으로 변신하는

* 본 논문은 1996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임

과정이 독자에게 공감대를 주는 것으로 보였다. 또한 <흙>이 대중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웅적 인물로 변신한 허송을 중심으로 한 삼각연애 관계의 갈등 때문이라 보았다.

<흙>이 농촌귀향소설로서 계몽을 모티프로 하였음에도 그 의미가 부각되지 못한 것에 비해, <상록수>는 여러가지로 농촌귀향소설로서 계몽 사상의 귀감이 되는 작품이다. <상록수>의 농촌계몽 실천자로서의 소영웅주의적 지식인의 선구자 의식, 기독교적인 박애와 희생적 봉사, 농촌계몽 이상의 정신적으로 융합할 수 있었던 지고한 사랑, 여주인공 영신의 장렬한 죽음 등은 서사주체(敘事主體)에 대한 선망성을 일으키는 효과를 낳았다. 그렇다고 <상록수>가 <흙>이 가진 통속성을 전혀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사랑에도 적극적인 채영신과 박동혁의 연애담은 즐거리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되고 사뭇 감각적 장면의 노출도 독자적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었다.

<찔레꽃>과 <순애보>는 화소를 분석하여 공감적 요소를 추출하였다. <찔레꽃>에 나타난 공감적 요인은 연애 통속담으로서의 의미, 근대적 연애 실패담으로서의 독자의 동정심 유발과 독자 감계(鑑戒)의 효과, 사랑의 착오극(錯誤劇)으로서의 오락성, 빈부의 극단적 설정으로 인한 낮선 체험의 심미감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찔레꽃>은 당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꾸준히 독자들에게 의해 공감대를 넓혀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순애보>의 공감적 요소는 <찔레꽃>에 비해 더 다양했다. 즉 이 작품은 전통적 婚事障礙主旨를 근대적으로 승화시켰고 여성에 대한 관능적 묘사와 금강산, 원산해수욕장 등 수려한 자연경관 무대 설정, 감각적인 현대적 문체와 외래어 사용 등으로 독자의 공감적 요소를 크게 확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애보>의 공감성은 <찔레꽃>처럼 동정이나 감계의 느낌보다는 선망의 느낌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순애보>는 해피엔드식의 연애소설로서 오히려 <찔레꽃>보다 전근대적인 연애소설의 요소를 내포한 것으로 판단된다.

1930년대 소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이나 대상 선정에 있어서 독자의 호응이나 관심을 포용하고자 하는 연구 경향이 매우 미미한 현실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시기에 신문연재 장편소설들이 대중성을 크게

지향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논의는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져 왔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의 1930년대 장편소설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도 독자 공감 요소에 대한 연구 1930년대 소설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과 객관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문학에서의 수용자 중심의 연구 관점을 포용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目 次

| | |
|-----------------------------|----|
| < 초 록 > | 1 |
| I. 序 論 | 1 |
| 1. 問題의 提起 | 1 |
| 2. 研究史 및 研究 方法 | 5 |
| II. 理論的 背景 | 10 |
| 1. 通俗小說과 大衆小說 | 10 |
| 2. 讀者와 讀書 環境 | 14 |
| III. 農村歸鄉小說의 大衆的 共感要素 | 18 |
| 1. 敘事主體의 英雄的 變身 < 흥 > | 19 |
| 1) '흥'의 大衆性 | 20 |
| 2) 英雄的 變身 | 25 |
| 2. 農村 啓蒙의 龜鑑 < 常綠樹 > | 29 |
| 1) 啓蒙思想의 振作 | 30 |
| 2) 小英雄의 敘事主體의 意志 | 35 |
| IV. 戀愛小說의 大衆的 共感要素 | 42 |
| 1. 同情과 鑑戒의 效果 < 질레꽃 > | 44 |
| 1) 사랑의 錯誤劇 | 45 |
| 2) 近代의 婚事主旨 | 51 |
| 2. 戀愛의 宗教的 昇華 < 殉愛譜 > | 55 |
| 1) 婚姻試鍊談 | 56 |
| 2) 官能的 描寫와 幻想的 背景 | 59 |
| 3) 修辭의 斬新性 | 62 |
| V. 結 論 | 66 |
| < 參 考 文 獻 > | 69 |
| < Abstract > | 72 |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1930년대는 일제의 탄압이 거세어지면서 우리 국토와 민중이 참혹하게 유린·약탈당했던 시기에 해당한다. 그 결과 우리 국토는 일제의 세계 진출을 위한 병참기지와 상품 시장으로 변모하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문학사적으로 카프의 해체는 그러한 외부 상황의 악화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일제의 1차 검거에 이은 2차 검거는 현실대응적 문학 내에서 응전의 결집력을 무장 해제케 함으로써 일제는 문학 내의 모든 정치적·사회적 관심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문학 내적으로 한국문학이 위축된 것만은 아니었다. 이 시기 문학은 서구문학과 문학이론의 수입으로 그 영향력이 증대됨으로써 문학 전반에 걸친 관심의 다원화 현상으로 전개되었다. 뿐만 아니라, 소설의 창작 기술면에서도 1920년대에 비해 훨씬 세련되고 전문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다만 1920년대의 소설이 주로 가난과 어두운 면 등 역사적 진실을 소재로 하는 사실주의적 경향이 농후했던 데 비해, 이 시기는 다채로운 소재와 주제 표현 방법과 창작의 양적 증대라는 현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920년대에 비해 문학 내의 현실주의적 응집력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나 이 시대 문학과 관련된 또 하나의 경향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1910년대 이래 꾸준히 이어 온 문화산업주의적 경향이다. 구한말 주권상실의 절망감에서 비롯된 각종 소비적 문화산업은 민중의 자기부정적 감상주의와 결합되면서 꾸준히 호황을 누려왔다. 1920년대에는 각종 연극단체들이 결성되면서 신과조 연극이 유행하였다. 1930년대에 들어와서는 영미의 영화, 잡지 등의 소개로 인한 저널리즘의 붐이 일어난 것이다. 특히 《조선일보》, 《동아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의 지면 확대와 부수의 증가로 1930년대 연재소

설의 문화산업적 역할이 커지게 되었다.¹⁾ 말하자면 신문에 연재되었던 장편소설은 저널리즘의 상업주의화 경향에 발맞추어 점차 대중적, 통속적으로 흐르게 되었던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1930년대 창작 경향을 고려하여 이 시기의 대중소설 가운데 독자들에게 공감대가 넓게 형성되었다고 판단되는 농촌귀향소설²⁾과 연애소설을 대상으로 신정한 것이다. 1930년대 소설 연구가 작가론, 작품론으로 매우 다양하고 심도있게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수용적 관점으로는 연구된 바가 별로 없음에 착안하여 독자 공감의 요소를 중심으로 탐구하고자 했다.

모든 문학 작품은 독자가 있어야만 그 문학적 가치를 제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핵심이다. 이 연구에 선정된 작품들이 당대 신문연재소설이기에 광범위한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성이 인정되는 소설이라 할 수 있다.

어떤 논자에 따르면, '신문연재소설은 공개회로에, 단행본은 폐쇄회로나 비디오테이프에 비유'³⁾될 만큼 신문연재소설은 '商人, 辯護士, 文人歌客, 官吏, 勞動者, 職工, 流民, 男女老少 등 各界各層의 廣範한 讀者層에게 고루고루 愛讀될 種類의 小說'이어야 한다⁴⁾고 하였다. 이 주장에는 다양한 독자층이 신문연재소설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김동인은 '新聞小說의 愛讀者란 家庭婦人과 學生이 大部分 占領하고 그 밖에는 商路의 商人과 極安價의 자극박계는 攝取할 수 없는 職工君과 小店員이 大部分을 占領한다'⁵⁾고 하여 신문소설에 두는

1) '1931년 무렵만 해도 4면으로 충분할 것을 신문사 간의 경쟁 때문에 6면, 8면씩 확대하고 나면 채워야 할 기사 거리가 부족하여 하루에 6-7 종의 소설을 게재하는 기대가 연출되기도 했다. 어느 면에서 문학의 저널리즘화는 문학과 신문의 필요가 서로 일치한 데서 비롯된 결과일 수도 있었다.' 유선영(1992), "한국대중문화의 근대적 구성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p.302.

2) '농민소설', '농촌소설'이란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귀향소설을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공감적 요인으로서 농촌귀향이라는 모티프가 농민의 문제를 포함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특히 이 글에서 다룬 장편소설은 주인공의 귀농이 독자의 심미감에 중요하게 영향을 끼친다고 보아 '유학생들인 주인공이 농촌으로 귀향한다'라는 의미로 농촌배경의 장편을 '농촌귀향소설'로 지칭하고자 한다.

3) 민병덕(1988), "한국근대신문소설연구", 성균관대 박사논문, p.195.

4) 通俗生(1933.9.8), '신문소설강좌', 《조선일보》.

여러 독자층의 관심이 무시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신문소설의 독자층이 어떠한가에 대해서는 이견(異見)이 있으나 위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특성상 폭넓은 독자를 확보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음은 명백하다. 그러므로 소설 작가나 신문사 측에서는 연재소설에서 독자들의 취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신문연재가 종료(終了)되어서도 여러 차례(작품마다 차이가 있지만)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면, 그 작품들은 많은 독자를 확보하면서 지속적인 인기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논의 대상이 된 소설에 대한 독자 인식을 살펴보면 작품이 어떻게 인기를 끌게 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1979년에 조사된 '중고교 선정도서 목록에 실린 소설'⁶⁾에서는 <상록수>, <흙>, <순애보>가 인기가 있었다. 1984년 문화방송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⁷⁾에 의하면 독자들이 가장 좋아 하는 소설로서 <상록수>와 <흙>이 다른 작품에 비해 많은 지지를 받고 있었다. 또한 1987년에 실시한 청소년 독서실태조사에 응한 설문에 응답한 결과⁸⁾에 따르면 한국장편소설 가운데 '현재 읽고 있는 소설', '최

5) 김동인(1933. 5.14), '신문소설은 어떻게 써야 하나', 《조선일보》.

6) 한국언론연구원(1979), 중·고교 선정 도서 목록, 한국언론연구원.

7) '韓國小說, 1,000年展'은 1984년 10월 22일부터 10월 31까지 여의도 스튜디오에서 열렸다. 이 전시회 이름이 이렇게 붙여진 까닭은 이가원 박사의 연구 결과에 따라 서기 700년에 『三國史記』에 쓰여진 설총의 <화왕계>에서부터 1979년에 발표된 황석영의 <어둠의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1200년 동안의 한국 소설 3,700여점이 전시되었다. 이 전시회에 참관하고 제출한 응모 엽서를 토대로 '내가 좋아 하는 한국 소설 베스트 10'을 알아 봤는데, 총 참가자 22,305명 중 심훈의 <상록수>가 9,750(43.71%),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이 8,529(38.23%), 이광수의 <무정>이 7,467(33.47%), 김홍신의 <인간시장>이 6,282(28.16%), 이광수의 <흙>이 6,054(27.14) 표를 얻어 다른 작품에 비해 좋은 평을 얻고 있다. '韓國小說, 1,000年展'(1984), <文化放送年誌>, p.262-263.

8) '현재 읽고 있는 책'은 <상록수>, <흙>, <혈의 누>, '최근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설'은 <상록수>, <무정>, <유정>, <운현궁의 봄>, <사랑>, <흙>, <무영탑>, <혈의 누>,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설'은 <상록수>, <무정>, <사랑>, <운현궁의 봄>, <흙>, <유정>, <순애보>, <무영탑>, <삼대>, <귀의 성>, <단종애사>, <혈의 누>, '남녀 중·고교 교사가 추천하고 싶은 소설'은 <상록수>, <흙>, <사랑>, <탁류>, <무정>, <순애보>, <삼대>, <무영탑> 등으로 조사됐다. 한국출판연

근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설', '지금까지 읽은 책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소설', 중·고교 교사들이 '추천하고 싶은 소설' 중 1930년대 장편소설로는 <상록수>, <흙>, <순애보>⁹⁾ 등이 빈도수가 높았다. 아울러 <절레꽃>은 작가에게 대중적 작가로서의 명성을 확고히 얻게 한 연재 소설로서, 대중소설의 전범(典範)이 되어 문학사적 의의가 있는 작품¹⁰⁾으로 평가되고 있으므로 연구자가 논의의 타당성을 입증시킬 수 있다고 보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다.

물론 여기에 선정된 작품들 중 일부는 고등학교 문학교과서에 실려 있어서 문학교육의 학습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목적 하에 독자는 의도적으로 독서 행위를 하게 된다. 이때 선정된 작품들이 일반독자가 아닌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읽게 되는 학습독자¹¹⁾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은 수용미학적 관점에서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부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습독자라 할지라도 독자로서 주체성이 전혀 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독자 반응의 연구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한다.

독자의 호응도만 가지고 작품의 가치를 전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만, 독자의 미의식의 중요성도 간과할 수 없기에 의도적 독자의 반응을 탐색하는 것도 일면적인 의의는 있다. 이러한 독서현상으로서의 의의에 주목하여 작품유형에 따른 공감적 요소를 분석하는 방법에 의해 작품의 성격과 의의를 밝혀보고자 한다.

연구대상 작품으로는 이광수의 <흙>과 심훈의 <상록수>, 김말봉의 <절레꽃>과 박계주의 <순애보>를 대상으로 한다. 위 장편들은 앞서도 언급했지만

구소(1987), '청소년 독서환경 실태 및 독서 교육에 관한 연구', 한국출판연구소.

9) <흙>, <무정>, <유정>, <사랑>, <운현궁의 봄> 등 모두가 당시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하고 있는 작품으로 조사됐으나, 이 작품들 중 연구자의 연구 목적에 부합되는 작품을 제한하여 <흙>으로 하였다.

10) 국어국문학회(1995), 「한국국문학자료사전」, 한국사전연구사, pp. 2806-2807.

11) 일반적인 독자들이 주체적이며 임의로 텍스트를 선정하고 이해, 해석, 그리고 감상의 과정을 거치는 데 반해, 교육의 대상이 되는 독자는 일정 정도의 의도된 계획 하에 의도된 감상 지도를 받는다는 면에서 일반 독자와 차이를 갖는다. 그렇다고 해서 독자로서의 주체성이 전혀 몰각되는 것은 아니므로, 문학교육이 대상이 되는 독자를 일반독자와 구별하여 '학습독자'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김종신(1994), "서사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의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 4.

독자적 공감의 폭이 컸던 작품으로 현재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선정된 것이다.

시대와 장소에 따른 수용자의 여건에 따라 작품의 가치가 달라지는 점을 바탕으로 당시 독자들의 독서 요구 상태에 대해 살펴본다. 문학 작품에 대한 감동이 작품 자체뿐 아니라 독자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점을 출발선으로 하여 문학 작품의 감상이나 해석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 보여줄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나아가 대중문화 시대를 맞이하여 순수소설 이외의 작품들에 대해서도 살펴봄으로써 다양한 문학 연구 풍토에 대하여 수용적 자세를 보이하고자 한 것이다.

2. 研究史 및 研究 方法

1930년대 장편소설에 대한 지금까지의 논의는 크게 세 갈래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이 시기 소설에 대한 개괄적인 연구,¹²⁾ 둘째, 작가론적 관점,¹³⁾ 셋째, 작품론적 관점 등이 그것이다. 이상의 선행 업적 가운데 필자가 이 연구에서 참고할 수 있는 것은 셋째의 연구 업적이다. 이들은 1930년대의 소설 작품들을 역사소설,¹⁴⁾ 가족사소설,¹⁵⁾ 통속소설,¹⁶⁾ 도시소설,¹⁷⁾ 농촌소설¹⁸⁾ 등으로 하위 분류하여

12) 대표적인 것으로 ① 아주형(1983), "1930년대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② 구인환 외(1989), 「한국 장편소설 연구」, 삼지원. ③ 조동길(1990),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④ 김동환(1993),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등이 있다.

13) 1930년대 작가론의 대상으로서 80년대 중반까지는 채만식, 염상섭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90년대 들어 이기영, 박태원에 대한 연구 업적이 많이 늘어났다.

14) 대표적인 것으로 ① 강영주(1986), "한국 근대 역사 소설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② 송백현(1985), 「한국 근대 역사 소설 연구」, 삼지원. ③ 박종홍(1990), "일제강점기 한국 역사 소설 연구", 경북대 박사논문. 등이 있다.

15) 대표적인 것으로, ① 이재선(1981), '한국 가족사 소설의 전개', 「한국문학의 해석」, 새문사, pp.121-152. ② 신상성(1987), '1930년대 한국 가족사소설론', 「한국근대소설론」, 형설출판사, pp.15-165. 등이 있다.

16) 연구자는 '연애소설'을 통속소설의 범주에 포함시켜 연구하고자 한다. 대표적인 것으로

논의를 전개한 것이다. 작품론을 전개 하면서 독자들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에 관한 연구가 필자의 연구 방향과 맥락을 같이 한다.

1930년대 장편소설 중 대중소설에 대한 연구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연구에서 1930년대 소설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원용된 것은 형식주의, 구조주의 등 문학 내적 연구방법과 사회, 역사, 신화, 원형이론, 장르이론 등 문학 외적 접근 방법을 적용하는 등 다양한 연구방법이 시도되었다. 이 중에서 1930년대 장편소설의 분석에 있어서는 역사주의적 방법과 사회·문화적 연구방법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⁹⁾

그러나 역사주의 비평 방법은 작가 연구를 중심 영역으로 하여 작품의 시대사적 의미를 추출하여 '문학의 의미와 가치를 알아내는 보조적 수단'²⁰⁾으로서 문학 연구에 많은 공헌을 했지만, 작가·작품·독자 세 주체의 원활한 대화를 마련하는 데는 미흡한 면을 보이고 있다. 사회·문화적 연구방법은 문학의 효용면에 초점을 두고 문학의 사회적 역할과 현실 생활과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공적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도 이 연구방법으로 문학의 전모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과연 당대 독자의 상황을 소설 작품의 이해에 어느 정도 정확성 있게 반영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이른바 수용미학²¹⁾에서 일컫

- ① 정한숙(1977), 「대중소설론」, 『현대 한국소설론』, 고대출판부, pp.97-148. ② 조동길(1932),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1930년대를 중심으로, 국학자료원, 등이 있다.
- 17) 대표적인 것으로, ① 이강언(1983),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 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② 나병철(1990), 「193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 연구」, 연세대 박사논문. ③ 최혜실(1992),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민지원, 등이 있다.
- 18) 대표적인 것으로, ① 신춘호(1980), 「한국농민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논문. ② 오양호(1981), 「한국농민소설연구」, 영남대 박사논문. ③ 신경림(1983), 「농민문학론」, 온누리. ④ 임영환(1986), 「1930년대 한국농촌사회소설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등이 있다.
- 19) 특히 농촌을 소재로 한 소설들의 연구방법은 대개 루카치의 이론을 필두로 역사나 사회학, 네오 마르크시즘적(Marxian)인 사회주의 리얼리즘 이론에 따른 접근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다. 최근의 대표적인 농민소설 연구의 경우, 김윤식, 장성수, 정호웅, 서경석의 경우를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는 모두 농민의 집단적 경향성에 방향을 맞춘 연구 업적들이다.
- 20) 이상섭(1984),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p.204.
- 21) 수용미학은 독자에 대한 이론을 반성하고 새로운 연구 자세를 모색하는 데 그 출발점

는 ‘기대지평²²⁾’이 당대 소설 연구에 적절하게 적용되었는가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쉽지 않을 것이다. 소설이 독자에게 수용되는 데는 역사주의적 방법과 사회·문화적 연구방법에 의한 시대적 ‘발견’의 의미뿐만이 아닌 당대적 향유라는 심미적 가치²³⁾로부터 작가와 독자간의 소통의 의미가 가능한 것이라면, 1930년대 대중소설에 대한 연구자의 관심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소설을 작가와 독자가 함께 노력하여 만나는 ‘텍스트’²⁴⁾라고 보고 독자들의 관심을 끄는 요소가 무엇인지에 주안점을 둔다. 지금까지 시도된 작품연구방법에 수용미학적 관점을 절충하여 독자반응을 중심으로 소설작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텍스트로서의 의미는 ‘작품이 독자에게 주는 모든 흥미, 감동 등의 정서적 효과나 세련된 구성이나 문체로부터 오는 예술성과 같이 전통적으로 심미적 측면에서 파악되어 온 문제들은 물론, 대상에 대한 새로운 발견과 인식의 깊이, 혹은 삶에 대한 반성이나 성찰, 전망의 제시와 실천 의지의 고취 등 다양한 내포를 갖는 개념’²⁵⁾이다.

독자의 반응에 관한 연구는 그 반응이 당대에 그치고 말았는지, 지속적인 반응을 보이는지에 대한 탐색이 중요한 관건이다. 왜냐 하면 독자의 양적 반응이 작품의 수요도를 의미한다면, 지속적인 반응은 작품의 생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이

을 두어 「작품은 독자의 독서 행위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문학 작품의 이해에 근거하고 있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문학 작품의 참다운 이해는 독자의 참다운 ‘독서 행위’에서 가능하다는 것이다. 차봉희(1992), 「독자반응비평」, 문학과 지성사.

22) 독자 즉 수용자가 지닌, 텍스트에 대한 이해의 범주 및 한계를 말한다. 한용환(1992), 「소설학 사전」, pp. 74-5.

23) 문학은 사회 기층 구조의 생산관계를 반영한다는 유물론적 방법이 사회적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을 대변한다면 형식주의적 방법은 문학 일체의 역사적 조건에서 분리시켜 심미적 기능을 중시하는 입장을 대변한다. 권희돈(1988), “「無情」의 수용미학적 연구” 제31회 전국국어국문학회연구발표대회 발표논문, p.180.

24) 볼프강 이저는 텍스트란 그것을 읽는 독자의 상상을 위해 미리 제시된 지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인 개념인 ‘작품’이라는 한 단어를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은 ‘텍스트’라는 단어로 보충되어야 한다고 본다. 차봉희(1984),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p.171.

25) 이기인(1990), “1920년대 소설의 심미성과 그 소설사적 의의”, 고려대 박사논문, p.6.

다. 연구 대상으로서 텍스트 선정의 기준은 일반적 독자적 호응도에 두고 범위를 1930년대로 한정하되 일간신문에 연재되다가 단행본으로 간행²⁶⁾되어, 당대뿐만 아니라 현재까지 많이 읽히는 작품이 된다.

이 작품들은 일반 독서 대중들의 지지와 환영을 받을 수 있는 제재들인 농촌 귀향, 청춘 남녀의 연애를 모티프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다른 작품들에 비해 1930년대의 독자층의 폭을 넓히는 동기가 되었다. 또한 위 작품들은 당시 신문연재소설로서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다는 공통점을 갖는다는 점도 고려되었다.

문학 작품에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게 마련이다. 때문에 문학 작품 속에 들어 있는 작가의 의도를 찾고, 그 의도와 독자들의 요구와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작가의 의도와 독자의 요구는 당대의 상황 속에서 문학운동과 사회 운동 속에서 찾으려고 한다. 선정된 작품이 대중소설이면서 통속소설이기 때문에 통속성에서 주목하는 '웃음의 해학성, 성의 관능성, 폭력의 선정성, 몽상의 환상성, 눈물의 감상성'²⁷⁾ 같은 범주에 주의를 기울이면서 독자 반응의 양상을 찾는 데 주력한다.

독자의 반응은 독자의 개인적 경험이나 지적 수준에 따라 작가의 의도와 부합될 수도 있지만, 그와 달리 나타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는 작품 그 자체가 텍스트일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작가의 의도가 변질되면서 작품 속에 녹아 있게 된다. 이러한 것은 통속 소설의 경우 더 강하게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 연

26) <흙>은 1933년 漢城圖書에서 간행되었고, <常綠樹>는 1935년 동아일보사의 '창간 15주년 기념 장편소설 특별공모'에 당선되어 연재된 후 1936년 8월 漢城圖書에서 간행되었다. <질레꽃>은 1955년 文研社에서 단행본으로 나왔고, <殉愛譜>는 1939년 매일신보사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며, 1941년 극단 '暁君'에서 극화되어 상연되기도 하였다.

27) '해학성'은 난센스, 폭소, 얹치락뒤치락, 파이 집어던지기, 열이 빠져 있는 사람들의 세계에서, '관능성'은 정열, 키스, 성행위, 열려진 속옷 또는 검정 실크양말 등의 세계에서, '선정성'은 피, 공포, 테러, 복수, 폭력, 재앙, 또는 죽은 자들이 떠 다니는 세상에서, '환상성'은 매혹, 경이, 몽상, 마법, 또는 이국적인 시대나 항상 기적이 준비되어 있는 세계에서, 감상성은 달콤한 고독, 흐느낌, 통곡, 카타르시스, 향수, 흐물거리는 눈시울 또는 눈물에 젖은 손수건이 춤추는 세계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박성봉(1995),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p. 323.

구에서는 기존의 작품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가의 의도와 독자 욕구의 공감성 구명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독자가 의도한 텍스트에서의 심미적 체험을 찾아서 작중 인물과 독자와의 관계에 따른 독자 반응의 양상을 추적한다.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 상황의 독자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작품 속의 주인공이 대리 보상에 대한 선망성(羨望性)과 작중 인물이 독자의 상황에 비해 열등한 가치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는 텍스트를 통해 독자에게 공감되는 효과를 일으키는 감계성(鑑戒性), 독자가 작중 인물과 비교적 동등한 가치를 추구할 때 생기는 동정성(同情性)을 찾는 데 주력하게 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정된 작품을 논의하는 데 있어서, 첫째, 각 작품의 공통적인 창작 동기가 시대의 요청에 따르고 있음을 전제하여, 대중성을 띠고 있는 신문연재소설의 특성에 비추어 통속소설과 대중소설의 성격을 살펴보고, 둘째, 대중소설이 많은 독자를 확보하기 위한 소설이라는 점을 바탕으로 하여, 각 작품에 대한 당대와 현재의 독자들과의 반응을 문헌 자료를 통해 검토하고, 셋째, 선정된 각 작품들의 독자 공감의 유형을 분석해 내어, 넷째, 그 독자 공감의 유형이 독자들에게 어떤 공감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지를 밝혀냄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방법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연구 과제와 관련된 문헌을 수집하여 문헌 분석을 통한 작품의 공감 요소를 파악하는 방법을 활용하였다.²⁸⁾

28) 독자의 수용 심리에 대한 객관적인 설문 조사 내용을 근거로 하여 독자 공감의 유형을 분석해야 더 정확하고 타당한 연구가 될 터인데, 이 문제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전제해 둔다. 또한 여기서 논의되는 작품이 1930년대 많은 장편소설 중 겨우 4편에 불과한 관계로 그 당시의 장편소설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는 부족함이 많음을 전제한다.

II. 理論的 背景

1. 通俗小說과 大衆小說

통속소설과 대중소설은 흔히 본격소설 또는 순수소설의 상대개념으로 이해되어 왔다. 통념에 따르면 순수소설은 주제, 인물, 상황, 문학적 장치들을 예술적으로 형상화함으로써 그 예술성의 가치에 의해 결정되는 갈래라 할 수 있다. 반면에 통속소설 또는 대중소설은 예술적 승화보다는 오락성이나 통속성이 강조된다. 그런 점에서 통속소설과 대중소설을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려는 관점이 있는가 하면 그 두 유형을 구분해 보려는 시도도 있다. 사실 소설에서 대중적인 요소와 통속적인 요소들을 명확히 분별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어서 유사한 개념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한국의 근대소설사에서 통속소설과 대중소설에 관해 본격적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20년대 후반부터라고 생각된다. 김기진의 「통속소설소고」와 「대중소설론」 등의 논의가 그것이다. 그는 통속소설의 결정적 요건은 내용과 제재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 내용을 보면 첫째 부귀·공명·연애와 여기서 생기는 갈등 또는 남녀·고부·부자간의 친구도덕관의 충돌과 이해의 충돌을 다루는 보통인의 견문과 지식의 범위, 둘째 감상적이거나 퇴폐적인 보통인의 감정, 셋째 종교적·배금주의적·영웅주의적·인도주의적인 보통인의 사상, 넷째 평이하고 간결하며 화려한 보통인의 문장에 대한 취미²⁹⁾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 내용의 실천 방법으로 그는 문체가 평이해야 하고 낭독하기에 편하며, 화려하고 간결하며 심리묘사 위주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러한 정의에 비추어 본다면 대중소설이란 개념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는다고 본다.³⁰⁾

29) 김기진(1928.11.10), "통속소설소고", 《조선일보》.

30) 김기진은 그의 '대중소설론'(《조선일보》, 1929. 4. 15.)에서 "'대중소설'이란 단순히

우리의 경우 통속소설 또는 대중소설은 신문소설의 발전과 더불어 성장하였다. 신문소설의 특성은 신문의 상업주의에 영합하여 오락성과 대중적 흥미 유발에 역점을 두는 것이다. 따라서 독자 대중의 생활감정에 근접한 내용과 시대사상이나 풍속과도 밀착되는 성향을 보인다. 대중적 독자들을 염두에 두고 창작되는 것인 만큼 그들의 관능을 자극하고 상식적인 주제나 내용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흥미롭게 부담없이 읽히게 된다. 그러므로 통속소설 또는 대중소설은 소설 형식을 통해서 일반대중의 의식과 교양을 높이는 데 주안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논의의 대상으로 삼은 <흙>, <상록수>, <철레꽃>, <순애보> 등은 그런 점에서 통속소설 또는 대중소설의 범주에 드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이들 작품을 '통속적인 대중소설'이라고 규정하고자 한다. 이 작품들이 신문소설로 연재되었고, 흥미 중심의 흥행성으로 많은 대중적 관심을 끌었다는 점에서 그렇게 보고자 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1930년대 신문연재소설이 크게 성행한 것은 대중적 독자들에게 소설에 대한 관심을 증진시키게 되었다는 점도 고려된 것이다. 상업적 목적을 가진 신문, 잡지들이 독자의 욕구에 이렇듯 부응하려는 것은 독자의 구미의 향방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해석해도 무리가 없을 것이다.

신문, 잡지 등에 실리는 문학작품은 특수한 방식, 즉 연재 소설의 경우처럼 일정 분량으로 나누어 독자에게 제공하게 됨으로써, 독자들이 작품 즐거기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에 관심을 두게 하는 효과가 있다. 서구의 소설 독자들이 연재 소설을, 동일한 작품이 단행본으로 출간되었을 때보다 더 애독했다³¹⁾는 지적도 당시 우리 소설 독자의 의식과 무관하지는 않으리라 본다.

연재 소설은 일반적으로 긴장된 대목에서, 해결을 찾아야 할 곳에서, 독자가 방금 읽은 것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어 나갈 것인가가 궁금해 할 만한 대목에서 끊긴다. 일시적으로 지체하거나 보류하는 이러한 유보 효과는 그 순간 우리가 사건의 진행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노력하게끔 작용한다. 이와 같은 효과를 바탕

대중의 향락적 요구를 일시적으로 만족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요, 그들의 향락적 요구에 응하면서도 그들을 모든 마취제로부터 구출하고 그들로 하여금 세계사의 현단계의 주인공의 임무를 다하도록 끌어올리고 결정하게 하는 작용을 하는 소설"이라고 정의함으로써 다분히 계급이론에 치우친 견해를 보이고 있다.

31) 차봉희(1993),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p. 208.

으로 신문이나 잡지에 실리는 장편 연재 소설은 선전 효과가 어느 정도 있게 된다.

이 선전 효과는 당시의 현실에 접속되어 계몽성으로 나타나게 된다. 원래 계몽 사상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이성(理性)이 모든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이성의 절대 우위를 전제로 한다. 그러나 계몽이 합리주의적 세계관 가운데 이성과 논리의 설득력을 기반으로 갖고 있는 만큼 소설로 수용되기 위해서는 독자의 정서적, 체험적 감각이 구체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계몽성은 때로 선정적 특성을 갖게도 되는 데 그것이 바로 통속적 요소 중의 하나가 아닐까 한다. 작가의 이성과 독자의 감성이 균형을 취하는 데서 계몽의 설득성은 발휘되는 것이며, 대중적 독자의 공감대는 다분히 통속적 재미에 놓이기 쉽다.

그러나 창작에서 연애소설로서 통속적 대중소설이 출현하여 독자의 공감대를 최대한으로 넓히기는 김말봉의 <찹레꽃>에서부터이다. 김말봉은 신문연재소설사상 최초로 센세이션을 일으킨 작가로 알려져 있다. 그는 나름대로 명백한 창작관을 지니고 대중의 공감을 얻고자 노력한 작가였다. 대중을 위한 소설의 창작에 대해 김내성이나 윤백남 못지않게 자부하였다는 점에서 그녀는 1930년대 후반을 대표할 만한 통속적 대중소설 작가였다. 백철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는 데서 그런 점이 확실히 드러난다.



<찹레꽃>을 통속소설이라고 한다면 작가 김말봉 씨는 다른 작가들과 같이 통속소설이란 말에 기분을 상하거나 나무랄 분도 아니요, 괜히 그곳에 자처할 분이다. 통속소설을 마다하지 않고 그 말을 감수하며 거기에 자처하고 통속소설을 쓰되 지지인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다고 스스로 평하는 데 소설가로서 김말봉씨의 달관이 엿보인다. 우리 문단에서 신문연재소설을 쓰는 작가는 대개 그 통속성에 대하여 자신의 비분의임을 변명하거나 김말봉 씨만은 결코 그런 구차한 변명을 하지 않고 진심으로 통속소설을 쓰고 본의로 쓰고 천직으로 쓴 것임을 언제나 인정할 뿐이다. 말하자면 김씨는 처음부터 나중까지 철두철미 통속소설가, 순수한 통속소설가라는 곳에 우리 문단에서 김씨의 독특한 존재어니와 김씨의 소설이 통속소설로서 성공을 하는 이유도 김씨가 철저한 통속소설관 위에 자처해 있기 때문이다.³²⁾

32) 백철(1938.11.29), '백, 리뷰 김말봉 씨 저 <찹레꽃>' 《동아일보》.

이러한 백철의 평에서 드러나듯이 김말봉은 의도적으로 통속작가이기를 자처한 셈이다. 1930년대 이후 신문의 상업주의적 속성이 짙어지기 시작하면서 신문연재소설도 점차 통속성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백철은 이 시기의 통속소설 유행의 원인에 대하여 '통속소설은 신문의 상업주의를 배경하고 1935년 이후에 등장되었다'고 말하고 통속소설이 등장한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은 '이 시대의 현실이 그처럼 암흑해서 그 전과 같이 경향적으로 나갈 길이 막혀버린 때문에 통속소설로 흐르게 된 사실을 중시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신문소설은 이와같은 통속성으로 인하여 각계각층의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모든 문학 작품은 독자가 읽어야만 그 의미가 제대로 발휘되는 것이지만, 신문연재소설은 특별히 광범한 대중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특별한 성격이다.

당시의 신문연재소설은 폭넓은 독자층을 확보하기 위하여 쉽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었다. 엘리트 독자가 소설의 플롯에 의한 서사전개에 주목하나 대중독자는 남녀 주인공의 사랑, 인상적인 장면이나 묘사 또는 쉽고 이해하기에 편리한 표현에 주목하게 되는 데 신문연재소설에는 보통 사람들에게 소설을 재미 있게 읽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소설적 장치를 하게되는 데, 이런 소설적 장치³³⁾가 삽화(插畫)와 함께 '적시성있는 사건에 적용'³⁴⁾이 됐을 때 독자들에게 공감 요소로 작용하게 되고, 이 요소가 작품의 주제의식에 이바지하면서

33) ① 뚜렷한 줄거리 ② 관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장면이 많을 것 ③ 남주인공이나 여주인공, 혹은 양쪽 모두의 주인공이 등장할 것 ④ 변화와 상상력이 풍부하면서 설득력 있는 성격묘사 ⑤ 뚜렷하고 자연스러운 등장인물의 움직임 ⑥ 면밀한 배경 묘사 ⑦ 읽기 쉬운 문장 ⑧ 약간의 서정적, 시적인 흐름(lyricism)과 강렬한 인상의 이미지를 풍부하게 담은 표현. 딘 R. 쿤츠, 박승훈 옮김(1886), 「베스트셀러소설을 쓰는 법」, 문학사상사, p.22.

34) 적시성이란 작품 발표의 적절한 시기를 말한다. <훈>이나 <상록수>가 당시 시대의 부름에 따라 시의적절하게 귀농을 모티브로 하고 있는 경우나, 오늘날 서점가의 베스트셀러들이나 방송극들 중에 많은 작품들이 이 항목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 경우처럼 독자층의 요구와 시대가 적당하게 맞물렸을 때 작품의 독자층은 폭넓게 확보되는 것이다. 현재 작품들 중에서는 김홍신의 「인간시장」, 고원정의 「최후의 계엄령」, 김진병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방송극 「모래시계」 등이 이에 해당한다.

독자로 하여금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독자들은 옛날 이야기
를 듣는 기분으로 어렵지 않게 작품에 빠져들게 되고, 작중 인물의 행동을 통
해 대리 체험의 만족을 얻으며, 작중 인물의 생각이나 갈등 구조를 이해하고 공
감함으로써 문학 작품을 통한 미적 가치를 판단하는 효과를 얻게 된다. 아울러서
이런 소설적 장치를 통해서 독자들은 현실을 바라보는 안목이 바로 서게 되고,
나아가서는 자신들의 삶 속에서 인간적 가치를 추구하는 하나의 모델을 제공받
을 수 있는 것이다.

이 연구에 선정된 작품들도 대중 독자 수준에 맞게 위와 같은 요소들이 잘
반영한 작품들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앞에서 제시한 소설들이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많은 독자층을 확보한 소설이라 한다면 독자가 그 작품에 매료되는 주
된 이유 즉, 그 작품에 대한 공감 요소를 밝히는 것이 우선적으로 문제가 된다.

2. 讀者와 讀書 環境

우리 나라의 1930년대 인쇄·출판문화는 매우 초보적인 상태에 있었다. 시설
이나 기술, 그 시장 등 모든 면에서 아직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이
다. 다만, 신문만은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 당대의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발
전을 보이고 있었다. 문예활동은 자연히 신문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에
따라 문학의 저널리즘화가 초래되었다. 신문의 학예란이 문예잡지의 구실을 하
고, 학예란의 인기도가 신문의 상업적 성패를 가름하기도 했다. 신문사는 광고수
입을 염두에 두고 인기작가의 소설을 연재하는 것이 관례화되어 있었다. 한편,
이러한 신문사의 행태는 독서시장의 판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글 해독자가
급증해서, 이들이 신문연재소설의 시장성을 보장해 주고 있었던 것이다.

여하튼 이러한 저널리즘화가 대중적 읽을 거리의 생산과 소비를 신문, 잡지의
저널리즘적 시각에 의해 규정되게 만들었음은 분명하다. 그 결과 화제성, 신기성,
인간적 흥미를 내용으로 하는 상업적 통속성을 전면에 내세우게 되었던 것도 필
연적인 귀결이라 할 수 있다. 곧 독서 시장을 형성하는 한글 해독자를 주목하고,

이들의 교양 정도를 염두에 두게 되자, 신문연재소설은 자연스럽게 통속소설을 지향하게 된 것이다. 그 구체적인 현상이 역사물, 애정물, 추리물 등이 당대 신문 연재소설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제하의 독자는 문자 해독 여부에 따라 세 부류로 나뉜다. 크게는 문자 해독 능력이 있는 부류와 문자 해독 능력이 없는 문맹자로 나눌 수 있는데, 문자 해독자는 다시 한자·한글로 이원화되니 세 부류로 나뉘는 셈이다. 첫째는 한문 해독 계층인 양반·유생군으로, 이들은 주로 족보, 경서, 문집류의 소비자들이다. 둘째는 한글과 한문을 해독할 수 있으며 근대적 교육을 받거나 근대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도시인구로서 상공인, 관료, 회사원, 노동자, 학생 등 비농업인구, 그리고 양반가 및 부유층 부녀자군이다. 셋째는 청문예(聽文藝)에 의존하는 다수 농민, 부녀자군으로, 이들은 신구소설류의 소비자였다.

1930년대에 이르면, 출판물이 더욱 다양해지고 독서환경이 한글중심으로 일원화되면서, 출판물 시장도 근대지향으로 가닥잡아 나가게 된다.³⁵⁾ 이 시기에 이르러 문자 해독능력을 지닌 잠재독자가 많이 늘었기 때문이다. 또한 출판담당자들도 점차 이들 한글 해독층을 중요한 독자로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당대 간행된 단행본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소설이었다. 이는 이 시기에 둘째·셋째 부류의 독자층이 전면으로 부상하게 된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소설은 가장 다양한 독자층을 가지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부녀자와 학생층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그 다음은 농공상인과 새롭게 형성된 노동자계층이었다. 이 시기에 사회저변 인구가 새로이 문자인구로 포섭되기 시작하면서, 소설을 주요한 읽을 거리로 삼기 시작한다는 사실은 주목을 요한다. 이는 기초교육에 한정된 식민지 교육의 결과 인문학적 교양과 전통의 바탕없이 문자만을 해독하게 된 대중을 양산해낸 것이 그 주요인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대중의 확대는 어디까

35) 1920년대 이전에는 각종 출판물이 한자를 위주로 하거나, 한글을 위주로 하더라도 중요한 단어는 한자로 표기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한글 출판물은 42%(잡지의 경우)에 불과했다. 그런데, 1920년대 이후에는 한글 발행물이 급속도로 증가되어 전체 66%에 이르게 된다. 그런 가운데 구소설도 많이 출간되었는데, 이는 주로 농한기에 농민 및 부녀자들의 읽을 거리로 애독되었다. 유선영(1992), 前掲論文, p.281.

지나 도시에 한정된 것이었으며, 농촌은 이와 같은 교육제도로부터 소외되어 있었다. 또한, 신문연재소설의 독자는 대개 둘째 부류에 속한다. 셋째 부류에 해당하는 청문예(聽文藝)에 의존하는 농민, 부녀자군은 아직도 신문연재소설의 독자는 아니었다.

총독부 조사자료에 따르면,³⁶⁾ 당대 사람들의 독서취향은 중년 이상은 역사적인 것을 선호하여 역사, 전기류를 많이 읽었고, 중년이하의 사람들은 청년남녀의 연애, 비극, 모험적 소설류가 선호되고 있었으며 이들은 주로 구소설을 읽었다 한다. 한편, 신구 지식층은 주로 정치, 종교소설을 탐독한 반면, 학생·부녀자·농공상층은 연애, 골계, 탐정물 등 오락물을 선호했다. 다수가 문맹이었던 농촌에서는 농한기 소일거리를 청문예(聽文藝)에 의존했기 때문에 자연 '구두전달'(口頭傳達)에 적합한 운율을 지닌 구소설(舊小說)을 선호했을 것이다.³⁷⁾ 이것은 근대화로부터 소외된 농촌의 전통적 정서 및 가치와도 일관성을 갖고 있었다. 이 시대 소설들이 구소설적 플롯과 통속성 일변도로 흐르고 있었던 점은 이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이 향유하고 있는 예술 작품 중 삶의 구체적 모습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것이 문학 작품이다. 그 중에서도 '있음직한 이야기'를 내용으로 하는 서사 문학은 근본적으로 삶의 모습을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한다는 면에서 의의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작품의 이야기가 현실과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점에서 독자는 작품 속의 이야기를 통해 현실 속의 세계를 체험하게 되고 아울러 여기에서 나름대로의 감동을 받게 된다. 작품 속에 나타난 허구적 상황에 대해 독자가 느끼는 현실감은 어떠한 속성을 지니고 있는가. 문학작품의 효용은 작품에 내재된 사건을 간접 체험하는 과정 혹은 그 결과로 인해 생기는 독자의 심적 상태의 변화에 있다. 독자가 작품을 통해 삶을 대리 체험한다는 것은 현실 세계에서 부딪치는 갈등을 작품 속의 세계에서도 발견하고 이를 현실적인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독자 공

36) 조선총독부 경무국 도서관의 1939년도 출판경향에 관한 보고 내용이다. 김근수(1974), 「일제치하 언론출판의 실태」, 한국학연구소, 유선영(1992), 前揭論文, pp.284-287.에서 재인용.

37) 농한기에 구소설의 간행이 급증하였다 한다. 유선영(1992), 前揭論文, p.282.

감의 유형은 독자가 독서 행위를 통해 어떤 감정을 갖게되는가를 기준으로 하여 작중 인물과 독자와의 관계에 따라 선망성(羨望性), 감계성(鑑戒性), 동정성(同情性)의 형태로 구분된다.

'심미주체'는 작품 속에 내재된 '서사주체'³⁸⁾의 생각이나 행위를 자신의 보편적 평균체험에 비추어 우월이나 열등 혹은 선망을 판단하게 되고, 이 판단은 체험적 평형성에 자극을 가하게 된다. 이 자극의 정도나 속성에 의해 심미체험의 구조와 유형은 달라진다. 즉 서사주체의 행위가 가치 상향적일 때는 서사주체의 초월성이나 문제성이 심미주체의 대리만족이나 모방의 대상이 되므로 선망성(羨望性)을 유발시킨다. 그런데 서사주체의 행위가 가치 하향적일 때는 심미주체에 감계성(鑑戒性)을 유발한다. 이것은 서사 주체의 열등성이나 혐오성이 심미주체에 상대적 우월감이나 경멸성을 유발시키는 탓이다. 또한 서사주체의 행위가 가치 평형적일 때는 그가 겪는 경험이 심미주체에게 일상적 삶을 재인식시키게 되므로 동정성(同情性)을 유발한다.

문학작품이 작가와 텍스트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작가-텍스트-독자의 상호소통 속에서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수용자 중심의 작품해석은 수용자의 일방적인 생각만을 중시한다기보다는 비교적 수용자의 입장과 현상적 의미를 좀 더 고려해야 한다는 보완적 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작품연구에 있어서 보다 다원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38) 작품을 수용하는 주체를 일컫는 말로서 독자, 수용자, 청자, 등 여러 개념이 있다. 그러나 각 용어의 외연적 의미가 거의 유사할지라도 내포적 의미에 있어 차이를 보인다.

텍스트를 심미적 향수의 대상으로 간주하고 이를 통해 심미적 체험을 하는 주체라는 의미에서 '심미주체(aesthetic subject)'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용어의 엄격한 의미는 '실제 독자'이며 또한 '학습 독자'와 거의 동일하게 사용된다. 그런데 단순한 독서 행위의 주체일 때는 '독자'라는 개념을 쓴다.

'서사주체(narrative subject)'는 작품 속의 사건을 주체적으로 해결해나가는 인물로서 작가에 의해 허구적으로 창조된 작중 인물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작중의 사건을 주도하는 주체는 화자를 의미할 수도 있으나, 화자는 '서술하는 목소리' 혹은 '발언자'라는 의미로서 텍스트 내에서 인물과 사건 그리고 배경을 설정하는 '서술주체'라는 의미가 강하다. 김중신(1994), 前揭論文, pp. 26-27.

Ⅲ. 農村歸鄉小說의 大衆的 共感要素

여기서는 우선 1930년대에 이광수의 <흙>이 1932년 4월 12일부터 1933년 7월 10일까지 271회로, 심훈의 <常藤樹>가 1935년 9월 10일부터 1936년 2월 15일까지 127회로 《동아일보》에 각각 연재되었던 점을 주목하여 당대적 문제인 '계몽'의 통속적 매력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1920년대 중반부터 진행되어 온 일제의 농촌수탈 정책은 1930년대 들어 점차적으로 자영농은 소작농으로, 소작농은 유랑민화되어 가는 현상을 부추겼다. 산업의 80%가 농업에 의존하고 있던 당대적 현실의 무게로 본다면 일상적 삶의 위협이자 생존 근거지의 상실이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토지조사사업, 산미증산 계획, 농촌진흥운동, 공출제도 등으로 이어지는 식민지 농업정책으로 조선 농민은 몰락 일로에 있었다. 농민 몰락의 구체적 과정은 자작농 및 자소작농의 완전한 소작농화, 소작농의 세궁민화, 세궁민의 유랑화 및 걸인화로 이어져 갔다. 이러한 현실은 심리적으로 고향 상실의식을 낳았고, 그 상실감은 삶의 근원적 질서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자 위협이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전개된 '브나로드 운동'은 러시아 혁명의 영향이 컸겠지만, 사실 러시아의 농노화와 조선의 소작화 현상이 갖는 우연적 체험의 공통점에서 오는 독자적인 자각에서 일어난 것임을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1930년대 초의 경직된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공감의 요소는 '흙'이었다. '흙'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너무 절박한 나머지 농사를 지은 적도 없는 룬펜 지식인들에게까지 확대되어 빠르게 번져 갔다. '흙'의 추구에는 식민지 근대화 정책에 대한 거부나 일종의 낭만적 탈출 심리도 편승하였다. 그것은 현실과 구체적 교감을 갖기 전의 성긴 모습 그대로 하나의 거대한 담론이 되었고 독자와 작가들은 서로 그 담론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1930년대 '흙'의 담론은 대체로 당대 농촌의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 소통되지 않고

독자와 작가 상호간 '완벽한 계몽형식'으로 소비된 꼴이었다.

유이민화 현상이 점차 전국적으로 퍼져가던 1930년대 귀농소설의 붐은 투쟁론적 입장에서는 소극적 대안으로, 준비론적 입장에서는 적극적 대안으로 좌·우익이 다같이 합심하여 이루어 낸 결과였다. 따라서 농촌귀향형 소설은 민족계열이나 카프 쪽에서 다 같이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에서 각계 각층을 망라하여 공동된 이야기 거리가 될 수밖에 없었다.

<흙>이나 <상록수>의 주인공들은 특출한 인물일 수밖에 없었고, 그들의 농촌 재림은 하나의 기적과도 같았다. 리얼리즘 농민소설로 손꼽는 <고향>에서도 비현실적 소작 쟁의가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면, 1930년대 농촌귀향형 소설에서는 농촌 사업이 성공할 것이나 하는 현실적 가능성을 타진하기 전에 농촌을 이야기 거리로 삼게 된 것 자체가 이미 낭만적이고 이상적인 가십거리로 공유할 수 있는 화제가 되어버린 듯하였다. 신문과 잡지는 새로운 현대적 저널로서의 화제와 뉴스를 공유하고 싶어했고 다수 지식인, 도시인들은 그러한 화제 거리를 놓치고 싶지 않았다. 브 나로드 운동은 무엇보다도 그런 뉴스메이커로서 등장하였고 브 나로드 운동에 관여된다는 자체는 소설 속 주인공들이 당대의 스타덤에 오른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1. 敍事主體의 英雄的 變身 <흙>

<흙>은 신문연재소설로서 당시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해 우선 당시 백철의 견해를 살펴보기로 하자. 그는 <흙>에 대한 감상 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흙>에서 늦긴 첫 感想이라면 무엇보다도 이 作品에는 "巨大한 것이 있다!"는 늦김이다. …… 一般新人 作家들의 作品에 對하는 늦김과 이 <흙>의 讀後感을 對照해보면 前者에 대하여는 □小한 砂利石을 차는 늦김 잇는 대신 後者에 대하여는 巨大한 바위에 부닥치는 늦김이 잇섯다.<□는 파자-인용자>³⁹⁾

이와 같이 그는 <흙>을 읽고 난 후에 느끼는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당시의 신인 작가들의 작품과 비교하여 그 수법과 능수능란한 사건 처리 등에서 뛰어난 작품임을 칭찬하고 있다.

그리고 김기림은 이광수의 <흙>에 대하여,

<흙>이 新聞小說로서 成功할는지 말은지 얼른 斷定을 내리기 어렵다. 그러나 氏는 恒常 그의 作品의 周圍에 었던 類型的 讀者를 吸引하고 있다. 그럼으로 <端宗哀史>의 충실한 讀者를 氏는 <흙>에 있어서도 일허버리지 안코 잇스리라.⁴⁰⁾

라고 하면서도 <흙>이 당시 독자들의 취향에 부응하는 작품으로 평하면서 많은 독자들이 확보되리라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다.

<흙>은 1932년 4월 12일부터 1933년 7월 10일까지 《동아일보》에 연재된 이후에 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다. 1939년에는 박문서관에서 《춘원이광수대표소설집》 전 8권이 간행되었다. 1962년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전집 20권이 「우신사」 판으로 나왔다. 한 작가의 전집이 간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흙>에 대한 평가, 나아가서는 그 작가의 문학사적 비중을 알 수 있으며, 작가를 독립된 개성으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1984년 문화방송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이광수의 <흙>이 5위를 차지하였고, 가장 좋아하는 작가로는 춘원이 단연 1위⁴¹⁾로 올라 있어 한국소설 1000년사 가운데 가장 뛰어난 작가로 인정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흙'의 大衆性

'흙', 또는 '땅'의 상징적·신화적 의미는 유사 이래 인간들에게 삶의 근원지

39) 백철(1933. 10. 21), '문예시평', 《조선중앙일보》.

40) 김기림(1933.1), "신문소설 올릭픽 시대", 삼천리, 현대사(1982), pp. 467-68..

41) 총 191, 409명 중 21,444 표(11.20%), 한국소설, 1,000년전(1984), 前掲書, p.264.

로서 의미를 갖는다. '대지'가 생산과 포근한 모성의 상징이라고 할 때 귀농의 모티프는 근본적으로 삶의 안착과 모태로의 회귀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김기림은 이광수의 <흙>을 평하는 잡지에서 인간에게 있어서의 '흙'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舊約>에 의하면 사람의 시조는 '흙'으로 비저진 것이라니, '흙'에 대한 추구는 사람 된 자의 본능일지도 모른다. 春園의 <흙>이 또한 이와 같은 방향을 덜고 잇는 것이 아닐까? (중략)⁴²⁾

인간은 누구나 흙에서 나와 흙으로 돌아 간다는 근원지로서의 의미를 확대하면 '흙'으로 돌아감은 인간의 본연의 회귀를 뜻하기도 한다. 1920년대 이후 소작인들이 타의에 의해 고향을 등져야 했던 현실을 고려할 때 농촌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은 단순한 현실 타개책 이상의 삶의 진정한 회복이라는 의미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나 '흙'의 수용은 소작인들의 귀향이라는 구체적 현실성보다는 신문사 주체의 행사나 사회적 선도의 입장에서 계몽적 효과를 목적으로 이루어질 뿐이다.

흙에서 살고 흙에 묻히자는 의미가 새로운 시대와 변화에 걸맞지 않다 하더라도, 당시의 피폐한 농촌 현실을 감안한다면 현실적 대안에 대한 중대한 인식이 있음에는 틀림없다. 말하자면 신문소설의 귀농 모티프는 당대적 현실을 고려할 때 당연한 독자 공감적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그런데 소설적 재미라고 하는 것이 주로 독자 위주의 감성에 편중되어 있다고 할 때, 과연 '농촌으로 돌아가기'의 소재가 어느 만큼 구체적 감동으로 다가올까 하는 데는 의구심이 생긴다.

원래 '계몽'이란 낱말은 감성보다 이성의 절대 우위를 전제로 하는 당위의 요소를 안고 있다. 이 논리는 흔히 신문독자의 수준을 상회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즉 작가가 철저한 합리주의적 사상으로 무장하고 이성의 힘만을 발휘한 '계몽적인' 소설을 썼다고 할 때, 그 소설은 논문과 같은 성격이 될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독자층 저변에 확대되기란 어려우리라는 생각이다. 이광수 소설이

42) 김기림(1933.1), 前掲書, pp. 467.

안고 있는 갖가지 모순은 이러한 합리주의와 독자적 공감확보간의 거리 극복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광수의 <흙>이 지닌 진정한 독자적 매력은 '흙'이 근원적 의미보다는 그 주변적 의미에 더 놓여 있다. 주변적 의미라면 윤정선을 중심으로 한 허승과 갑진의 갈등, 유순을 중심으로 한 허승과 맹한갑이 갖는 애정 갈등이 야기시키는 심미성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그것들 때문에 '흙'의 의미가 퇴색되는 것은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흙'의 의미는 공론(空論)에 빠지고 말았다. 이는 허승이 살여울을 발전시키기로 마음먹고 전략적으로 돈많은 윤정선과 혼인하여 돈을 쥐고 그것을 농촌사업에 쏟아 붓는다는 '가난뱅이'의 입지전적 처세라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을 뿐이다. <흙>이 실제 농촌현실 내부로부터 어떤 개혁이나 발전의 가능성을 발견하거나 한국농촌의 실상을 본격적으로 다룬 농촌담은 될 수 없었던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느 평론가의 다음같은 말에서도 입증되는 사실이다.

이번의 <흙>에서도 不自然한 認識不足은 얼마라도 指摘할 수 있다. 그 一例만 든다면 허승이가 農村事業을 한 지 一年만에 '살여울'의 富豪 '유정근'이 今時에 大打擊을 바다서 杜門不出로 苦悶하는 地境에 빠졌다는 것이니, 이것이 커다란 웃음거리가 아니고 무엇이냐?

農村事業이 그처럼 容易하며 또 그처럼 速效肥料가튼 效果가 난다면 農村問題란 當初부터 일어나지도 아니하였을 것이다.⁴³⁾

농촌 내부로부터 진정한 농민담으로서의 개혁 문제를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는 '흙'이 갖는 담론의 의도가 빗나감을 뜻한다. 그 빗나감은 곧 소설의 형식적 화두가 되고 있는 '살여울 살리기'가 진정한 한국적 맥락에서 전형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확인된다. <흙>이 농촌소설로 보기에 함량 미달로 보이는 까닭은 무엇보다도 '살여울' 이야기가 그 전체 분량의 4분의 일 정도에도 못 미치는 데 있다.

제목이 부끄러울 정도의 도시 편중과 허승 주변의 치정에 얽힌 이야기, 게다가

43) 嚴상섭(1933. 7. 30), '춘원의 <흙>을 읽고', 《조선중앙일보》.

가 이견영의 엽색행각 등이 도시의 부패상을 확대 과장하여 그려내고 있는 것이다. 물론 지식인들이 도회지에서 적절한 역할과 직업을 갖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는 모습들은 결국 <흙>이 주장하는 대로 인텔리들의 귀농의식을 부추기고 설득하도록 기여하기는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기에는 김갑진이나 이견영 혹은 월선, 정선 등으로 대표되는 지식인들의 애정 행각이 지나치게 과장되고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

일정한 일거리 없이 허구한 날 그들은 경성역 부근이나 카페, 요릿집에서 어슬렁거리며 대기하다가 허승의 일에 적극적으로 끼어 들어 편지나 전화질, 또는 방문하여 책방을 놓거나 간섭을 하곤 한다. 허승의 주변, 특히 정선과 갑진의 치정관계에 너무 많은 관심을 동원시킨 작가는 모든 소문들이 '살여울'의 허승에게 집중되게 할 것을 잊지 않는다. '살여울'에 와서도 정작 허승에게 가장 문제되어야 할 농민들과의 공감적 유대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 허승은 몸만 '살여울'에 있을 뿐 그들과 진정으로 고민을 같이하지 않는다. 허승이 파악하고 있는 '살여울'의 문제점은 무엇보다도 위생 문제와 굶주림 문제에 국한되어 있다는 사실은 작가가 식민지 농촌 문제를 매우 피상적으로 관찰하고 있었다는 증거로 드러난다.

그럼에도 1930년대의 독자나 작가가 그 담론의 공허함을 알면서도 기꺼이 소통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실제와 상관없이 신문소설 <흙>이 농촌 소설로서의 의의는 하나의 상상력의 전범으로 즉 '관념화된 농민운동'⁴⁴⁾으로서 형상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흙'의 의미가 '살아있는 전형'이 되려면 현실적 맥락이 좀 더 구체적으로 감지될 수 있도록 묘사되어야 했을 것이다. 만약 '살여울'이 당대의 내면적·역사적 모든 갈등과 한을 다양한 민중적 삶을 통해 깊이있게 우려 낸 모습으로 감지될 수 있었다면, 대대로 뿌리 박고 살아온 살여울 농민들의 고뇌와 한을 구체적 맥락 속에서 훨씬 방대한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흙>에서 그려 낸 '살여울'의 모습은 불행히도 전형성을 갖추는 데 미달되고 말았다. 살여울은 경성과의 끊임없는 관련 속에서, 그리고 허승의 구원자적 모습과 그를

44) 신춘호(1980), "한국농민소설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p.50.

추종하는 많은 여성들(정선, 월선, 유순, 현의사, 유월이 등)과의 관계에서만 추상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이상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는 점에서 '살여울'은 실제적 농촌이라기보다는 관념 속의 농촌이다. 유순을 둘러싸고 황기수와 맹한갑이 싸움을 벌이는 장면이 거의 유일하게 농민의 생활현장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주인공 허승은 빈대나 벼룩을 잡고, 파리나 모기를 없애고, 식량을 증산하여 배불리 먹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는 식으로 농촌을 이해한다. 모든 사람들 사이의 갈등이 설득, 사랑, 인내, 수양, 관용, 개인의 희생에 의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농촌이야말로 1930년대 현실 너머의 공상적인 농촌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허승을 중심으로하는 살여울의 공상성이야말로 신문소설 <흙>이 모순 속에서도 곳곳이 인기를 끌게 된 비결이 된다.

'흙'이 <흙>에서 전형적 의미를 내포하게 하려면 허승의 귀농 과정이 역사적 필연성을 더 지녔어야 할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주인공의 입지가 확보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고아의식, 역사적 단절감으로 시작되는 허승의 농민 의식은 땅에 대한 근원적 상징이나 역사적 의미에는 닿지 못하고 그저 농촌 소득의 저하로 굶주림이나 더러운 위생 환경만 먼저 눈에 들어온다는 식의 농촌 인식에 머물고 말았다. 허승이 유일하게 갖는 역사인식은 계급주의 영향을 받은 반상(班常)식의 이분법적 계급의식이다.

나라는 양반이 망쳤고 그들은 사리사욕에 어두워 놀고먹기만 했다는 매우 단순한 역사 의식은 근본적으로 농민 생활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무지함을 드러낸 것이다. 허승의 양반에 대한 적개심은 윤참판이나 김갑진류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것임을 생각할 때 실제 농민들의 역사와 정신 세계에 대해 지극히 개인적이고 단순함을 벗어나지 못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승의 反 양반의식은 가난한 농민 편을 든 것같지만 사실은 전통 단절론이나 과거부정의 합리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비판정신이다.

작가의 합리주의 추구는 윤참판의 아들 인선이 병들어 죽어가는 데서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한의들이 토론을 통한 처방과정과 그들의 논의내용을 자세히 묘사하면서 '귀신같은 놈들'이라고 야유한다. 또 유초시가 장질부사에 걸려서도 악

착같이 봉제사하려다가 죽음을 자초했음을 비판한다. 작가의 이러한 비판태도는 의리를 어기는 데서 더 강렬해진다. 특히 김갑진이나 이견영 같은 향락적 삶의 태도에 대해 강한 어조로 비판하는 태도가 매우 고압적인 데서도 그 점은 드러난다. 작품 전체가 설교적이거나 도덕적 교양을 위한 내용으로 그쳐 갈등이 양극 단으로 치달은 다음에는 예의 인과응보적 상황이 전개되는 등 도무지 피부에 와 닿지 않는 작위성이 작품의 리얼리티나 감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악재로 작용한다.

과거 전통적 생활방식이나 처방이 현대인의 감각적이고 자기충족적 삶의 방식과 거의 대등하게 비판받고 있다는 것은 준엄한 도덕주의적 작가관의 특징이다. 감각이 현대성이라면 이성온 과거 전통적 인습을 버리지 못하는 것이라고 볼 때 비판의 기준이 작가중심적이며 모호하다. 한민교 선생에게서 전통적 의상이나 습관, 그리고 순례의 서양음악 감각은 매우 존중되면서 한의들의 처방 논의와 이견영이나 윤정선의 신세대적 생활 감각은 철저히 배격된다.

이것은 작가의 전통에 대한 인식이나 현대성에 대한 인식의 깊이가 확실하게 자리잡지 않은 상태의 것임을 증명해 준다. 물론 그것이 애초부터 허승으로 대변되는 고아의식으로부터의 개인적 특징일 수 있다. 애국 계몽기의 민족 의식과 자주독립 의식, 그리고 개화기의 근대화 의식이 아직 사라지지 않은 이광수 초기 작품의 증상이 어설피 형태로 대중성을 겨냥하여 무리하게 나아가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것도 1930년대 초기라는 과도기적 현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시대적, 개인적 장애를 딛고 시대를 또는 역사를 제대로 파악하고 대중을 계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흙>이 되었을 것이다.

2) 英雄的 變身

김기림이 어느 잡지의 논평에서 '<단종애사>의 충실한 독자를 써는 <흙>에 있어서도 일허버리지 않고 잇스리라.'라고 말한 것처럼 <흙>이 계몽적인 의도 하에 쓰여진 소설임에도 불구하고 '독자와 독서 환경'의 항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작품의 독자가 농민들이라기 보다는 근대지향적인 성향을 가진 상공인, 회사

원, 노동자, 학생 등 비농업인구, 그리고 양반가 및 부유층 부녀자군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흙>의 공감성은 작가의 의도에서보다는 독자의 작품에 대한 관심에서 찾아 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그 공감의 요소를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영웅적 모티프로서 허승이 독자의 흥미를 끈 점은 당대의 이상적 남성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데 그 일차적인 이유가 있다.

그는 투박한 건강미가 있고 기적 비슷한 것을 일으키는 능력과 지혜를 겸비하고 있으면서도, 상류층 남자들이 공통적으로 갖는 호색 취미는 없다. 허승의 이미지는 자기보다 험벗고 굶주리는 자들을 먼저 구제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예수나 석가와 같은 구도자적 이상상으로 비추어진다.⁴⁵⁾ 그는 마을 사람들의 장질 부사를 치료하려다 자신이 몸소 앓게 된다. 처음에 가진 돈을 모두 그들을 위해 사용하였고 다음엔 모든 정열과 타고 난 체력을 바쳤다.

또한 자신의 사랑, 즉 '유순'을 포기하기조차 하였다. 정선과의 혼인은 '살여울'의 가난한 농민들을 구하기 위해 결행한 것인 만큼 정선은 어떤 점에선 희생자다. 정선은 허승의 전부를 사랑할 수 없고 그의 아내로서 남편이 베푸는 의무적 사랑만 받을 수 있었다. 허승의 후광으로 작용하는 한민교 선생도 허승의 영웅적 이미지에 비하면 초라하다.

작가는 후반부에서 영웅으로서 허승의 희생적 행위에 대한 정통성을 한민교 선생을 반복적으로 떠올림으로서 더욱 부각시키고자 한다. '1. 사랑과 의무의 무한성, 2. 섬기는 생활, 3. 개인보다 나라'를 근본조건으로 내세우는 허승의 생각은 곧 한민교 선생의 가르침이자 실천 방향이다. 한민교 선생은 허승의 사고 방식과 행동 양식의 정통적 기반이자 배경이 되고 있지만, 그는 그저 '시대적 스승'으로 배경 처리될 뿐이다. 그는 실체적 모습보다는 시대적 당위와 정당성이 만들어 낸 상상력 가운데 존재하는 추상화된 모습이 더 돋보이는 인물이다. 이 허승의 행위는 보편적인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영웅적 속성을 띠고 있어서, 독자는 이러한 행위를 체험하는 과정에서 주인공을 자신보다 우월한 위치에 놓고 그를 선망하게 된다.

45) 이와 같은 것은 현대 소설 중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김홍신의 「인간시장」이나 SBS 방송극 「모래시계」.

현실 속에서의 한민교 선생의 실체는 허승보다 더 초라한 모습으로 묘사된다. 허승처럼 재력도, 변호사라는 실력도 갖추지 못한 한민교 선생은 허승보다 현실적으로 무능하게 보인다. 더구나 허승의 도덕적 실천과 자기 희생의 고매한 정신은 더 빛나고 숭고하여 범상한 남녀관계로 이해하기 어렵다. 허승의 이미지는 구도자의 이미지와 비슷하며, 그에게 있어 혼인이나 가족이나 하는 개념은 무의미한 듯하다. 조선의 이기적인 가족주의야말로 허승에 의해 강렬하게 비판받는다.

허승은 조선적인 이기적 가족주의를 벗어나 조선 민중을 구제하기 위한 구도자적 고행의 길에 나선다. 이 허승을 따라 그를 흠모하는 여인들이 몸에 지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그가 손짓하는 곳으로 나아간다. 거기에는 희생과 고통이 따를 것을 알고 있지만 허승을 향한 애모의 일념 하나로 그 모든 것은 무화(無化)된다. 그들은 허승을 지향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보람있으며 죽음을 넘어선 절대적 경지의 삶이 되리라는 생각을 지니고 있는 것 같다. 전통적인 가족주의적 삶을 이기주의적이고 추악한 반상간의 갈등의 원인으로 비판하는 작가의 반혈연적 당파성에는 이처럼 환각적인 종교주의가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로, <흙>에서 찾아 볼 수 있는 공감 요인 영웅적인 허승의 주변에서 애정의 갈등 구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남성위주의 혼인관계가 빚어낸 인텔리 여성들의 비극은 개화기 세대의 윤참관이나 이의사 등 축첩의 관습과 이견영, 김갑진을 중심으로 한 호색과 혼인빙자 간음에 의해 상승작용을 한다. <흙>의 여성들은 대부분 혼인을 기피하고자 하는 유형들이다. 카페의 여급으로, 기생으로, 또는 노처녀로 살아간다. 그들의 공통점은 허승과 같은 뜻 있는 남성상을 원한다는 점이다. 교과서적인 단순함과 한민교 선생을 둘러싼 기속사 생도다운 의식에서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주로 미션 스쿨(mission school)의 경험이 그들에게 그런 소녀적 틀을 부여했겠지만, 그들이 사회나 역사를 보는 눈은 너무 감상적이거나 즉흥적이어서 매우 편협하다.

백선희나 노처녀 현의사, 한 남자에게 마음을 준 뒤 집착에서 못 벗어나는 심순례, 허승에게 마음을 허락했다는 이유로 맹한갑과 혼인하고도 허승을 사랑하는 유순, 무작정 허승을 모시기로 작정한 유월이, 서른 셋 처녀성을 호색한 이견영에게 바친 정서분, 이들은 모두 사회인식이 편협하고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애정

관의 소유자들이다. 유순이 품고 있는 생각, 선희가 쓴 일기들을 보면 대등한 한 남자에게 대등한 존재로서의 사랑이라기보다는 그것은 한 구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고 싶어하는 수녀나 비구니의 믿음과 같은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흙>에 대한 독자의 흥미는 결국 상황의 변화, 즉 애정관계의 새로운 국면의 발생으로 인해 유지된다.⁴⁶⁾ 즉 허승-윤정선-유순의 갈등에서 허승-윤정선-김갑진의 애정 갈등으로, 이는 다시 허승-윤정선-백선희의 관계로 발전하고, 다시 허승-맹한갑-유순의 갈등이 차례대로 생겨나면서 독자적 공감의 흥미는 영웅적 허승의 주변부에 머물게 된다.

이와 같이 못 젊은 여성들의 흠모를 한 몸에 지닌 주인공 허승이라는 '가난뱅이 시골뜨기'의 '환상적 변신'이야말로 <흙>의 1930년대 농촌귀향의 진정한 계몽적 의미를 퇴색시킨 모습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흙>이 갖는 이와 같은 통속성이야말로 당대 독자대중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중요한 특성이었다고 본다.

이처럼 <흙>은 농촌귀향소설이지만 농촌귀향의 취지가 농촌계몽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한 작품이다. 그럼에도 <흙>이 농촌귀향소설로 독자의 공감을 확보할 수 있었던 까닭은 허승의 영웅적 변신과 그의 주변의 정선과의 파행적 신혼생활 그리고 건영, 갑진 등의 열색적인 행각과 열차사고 등으로 나타나는 사필귀정의 교훈적 처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러한 농촌귀향담으로서의 계몽성보다는 주인공의 일탈적 사생활이 가장 흥미를 끈 요소가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허승과 적대적인 관계에 놓여 있었던 인물들은 허승의 인격을 본받아 새롭게 변한다. 결국 <흙>은 방황하는 지식인들이 인과응보적인 죄값을 치른 후 허승과 같은 인격, 즉 사랑과 용서, 그리고 인내와 봉사 등에 의하여 구원되는 재생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이다.

이 작품의 독자가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많다는 사실은, 바로 허승이라는 주인공의 숭고한 느낌으로서의 선망성(羨望性)이 공감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46) 이주형(1995), "한국근대소설연구", 창작과 비평사, pp. 100-101.

2. 農村 啓蒙의 龜鑑 <常綠樹>

동아일보가 브 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농어산촌 문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소설을 현상 모집하였는데, 그 응모 기준을 보면 다음과 같다.

應募作品의 題材와 構成은 作者에게 一任할 性質의 것이지만은 本社의 意圖가 朝鮮農漁山村文化에의 寄與에 있는지라 다음의 몇 가지에 留意해 주면 더욱 좋을까한다.

1. 朝鮮의 農漁山村을 背景으로하여 朝鮮의 獨自의 色彩와 情調를 加味할 것.
2. 人物중에는 한 사람쯤은 朝鮮青年으로서의 明朗하고 進取的인 性格을 設定할 것.
3. 新聞小說이니만치 事件은 興味있게 展開시켜 都會人, 農漁山村人을 勿論하고 다 熟讀하도록 할 것⁴⁷⁾.

이와 같은 내용 조건에 따라 공모한 소설, <상록수>는 연재가 되는 동안 많은 독자의 호응을 얻었음을 다음의 내용을 통해 알 수 있다.

<상록수>가 연재되기 전의 독자의 반응을 보면,

沈熏씨의 소설의 채택이 한번 발표되자 사회 각층의 독자들로부터 매일같이 어서 게재하라는 주문이 답지함을 보아 이 소설이 미리부터 얼마나 일반에게 커다란 기대를 받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이 소설은 본사가 이를 공모할 때에 제출한 모든 요구와 신문소설로서의 여러 가지 조건에 충분히 부합할 뿐만 아니라 문단적으로 보아도 근래의 큰 수확이니 독자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어짐이 없을 것을 굳게 믿는 바입니다.⁴⁸⁾

이와 같은 독자 반응은 다음과 같은 글에서도 입증된다.

47) 동아일보(1935. 3. 20), '장편소설특별공모', 《동아일보》.

48) 동아일보(1935. 8. 27), '연재예고, 소개의 말씀', 《동아일보》

본보 창간 15주년 기념의 공모 채택 소설 심훈씨의 '상록수(常綠樹)'는 만천하 독자의 파격적 감격과 찬탄을 받고 최후의 한 사람 박동혁의 금후 활동에 대한 기대를 남긴 채 어제로써 끝났습니다.⁴⁹⁾

이처럼 <상록수>는 독자의 호평을 받으면서 1936년 6월 영화화하려고 하였으나 일제의 방해로 좌절되었다. 그 해 8월 28일 한성도서주식회사(漢城圖書株式會社)에서 단행본으로 첫 출간되었으며, 오늘날 단행본으로 여러번 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영화화, TV극화는 물론 비디오로 제작되어 많은 독자에게 아직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물론 1981년에는 일본에서도 이 책이 간행되어 좋은 호응을 얻었다고 한다. .

1) 啓蒙思想의 振作

고대 신화나 영웅소설의 주인공들은 대개 혈통이나 능력면에서 범속한 능력을 뛰어넘는다. 이들의 우월성은 통상 행위로서 드러나며, 독자들은 그러한 행위를 문제삼게 된다. 그런데 그들의 비범한 능력이 효나 충, 열과 같은 지배집단의 이념을 고취하고 귀감화하는 과정으로 이용된다면, 그런 이야기를 전하는 목적은 대중독자들로 하여금 신화나 영웅적 주인공들의 행위를 모방의 대상으로 삼게 하려는 데 있을 것이다. <상록수>가 1930년대 소설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모방의 대상으로서의 지배이데올로기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사실이다.

채영신과 박동혁의 존재와 행위는 당시의 독자들에게는 하나의 모범적인 행위이며, 조선 청년들이 나아가야 할 바를 제시하고 있는 상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채영신은 농촌계몽운동에 갖가지 고초를 겪어 나가는 과정을 밟음으로써 현실감을 얻고 나름대로 당대 독자대중의 현실적 전망이 되고 있다는 점이 과거 <무정>이나 <흙>의 선망적인 주인공들과 성격이 다르다.

작가 심훈은 이미 농촌계몽을 주제로 1933년 <영원의 미소>, 1934년 <적녀

49) 동아일보(1936, 2. 16), '신문광고', <<동아일보>>

성>을 《조선중앙일보》에 연재한 경력이 있다. 그는 <먼동이 틀 때>와 같은 농촌소설을 직접 써서 영화로 각색하여 감독을 맡기도 할 정도로 농촌문제에 대해 정열적인 관심을 보였다. 지식인들의 귀농을 주요 모티프로 하는 <영원의 미소>의 성공적인 연재 직후에 <상록수>가 《동아일보》에 당선된 만큼 위 두 작품은 일반에게 대중화된 농촌귀향소설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심훈은 ‘민족주의적인 농촌계몽주의자’ 정도로 많이 알려진 듯하다.

그러나 그러한 이미지와 달리 심훈의 삶과 이상은 꽤 ‘혁명적 전망’ 위에 기초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가 한때 카프의 전신인 염군사의 동인이었다는 점, 중국에 망명해 있을 동안 이동녕, 이시영과 두루 교류하면서 사회주의 사상의 세례를 받았다는 점, 귀국 후 홍명희의 강력한 자장 아래 놓여 있던 점 등이 지적⁵⁰⁾되고 있는 것이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앞서 밝혔듯이 문학작품은 작가 혼자 이루어 내는 것이 아니라 독자의 참여에 의해 완성되는 ‘텍스트’라는 관점에서 볼 때, <상록수>의 공감적 요인은 따로 밝혀야 한다고 본다. 무엇보다도 <상록수>가 작품을 읽는 독자를 흡인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무엇일까를 탐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우선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남녀 주인공 사이의 애정 문제를 흥미있게 전개해 나간 점이라 할 수 있다. 박동혁과 채영신은 만남과 헤어짐을 반복하면서 애정의 농도를 높여간다. 마치 우리 고전소설의 지인지감(知人之鑑)을 연상시키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 첫 대면하여 서로 강한 인상을 받은 이들은 헤어짐 속에서 서로를 생각하며 편지를 주고받고, 애정을 확인하며 고조시켜 가는데, 이 남녀 ‘소영웅’들의 연애담이 <상록수>의 공감요소로 강력하게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약 ‘농촌운동’만을 다룬 연재가 되었더라면 과연 독자들이 그만큼 호응하였을 것인가? 문제는 남녀 주인공이 애정갈등의 독창적인 구조와 현실성, 선망성에 독자의 공감대는 놓여있다.

젊은 남녀의 애정갈등에 토대를 두는 심훈 소설의 통속성은 이미 <영원의 미소>에서 크게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최계숙을 둘러싼 김수영, 조경호, 서병

50) 유문선(1993), ‘나로드니크의 로맨스-심훈의 <상록수>론’, 정호웅외, 『장편소설로 보는 새로운 민족문학사』, 열음사, pp. 133-146.

식 등의 접근과 애정의 다각형은 작품의 주조를 모호하게 할 정도로까지 확대되어 있다. <상록수> 역시 비범한 주인공들의 애정 성취 과정의 지난(至難)함을 작품 전개의 축으로 삼음으로써 전형적인 통속 구조와 출발선을 같이 하고 있다. 남녀 주인공의 비범성('소영웅주의'라고 일컬을 만하다.)과 애정갈등 유발요인을 '계몽'이라는 숭고한 사회적 가치에 집중시킴으로써 상업주의적인 통속성과는 거리를 유지할 수 있었다. 더욱이 고결한 사회적 희생으로 일생을 마감하는 여주인공의 죽음을 작품 끝에 설정함으로써 그 효과는 더욱 증폭된다.

구체적으로 <상록수>의 내용을 분석하면서 독자 공감적인 요인들을 작품의 외적 요인과 내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해 보자.

<상록수>의 외적 요인으로서의 공감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된다.

첫째는, 이 작품이 <동아일보>의 전격적인 기획연재로써 시의적인 행사의 하나로 시작된 작품이라는 점이다.

<동아일보>는 브 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 1933년 4월 1일부터 새철자법을 개발 시도하였다. 이는 6년의 준비와 거금 7만원의 경비를 투자한 포인트식 활자로 종래의 해서체를 전격적으로 대중적인 명조체로 바꾸는 열의를 보였다. 보다 적극적으로 한글 보급과 위생 지식을 계몽하기 위해 일대 민중운동으로 학교교원, 서당선생, 동리유지, 일반 지식청년들까지 학생 계몽대와는 구별하여 별동대를 조직 한글보급운동에 참여하게 하였다. <동아일보>가 전개한 1931년부터 1934년까지의 한글강습 결과는 다음과 같이 집계되었다.

- 제 1 회 (1931) 423 명 참가, 142 곳, 9392 명 강습.
- 제 2 회 (1932) 2724 명 참가, 592 곳, 41513 명 강습.
- 제 3 회 (1933) 1506 명 참가, 315 곳, 27352 명 강습.
- 제 4 회 (1934) 1094 명 참가, 271 곳, 20601 명 강습.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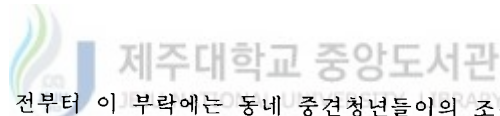
1934년 총독부에 의해 금지되기까지 당국의 간섭이 있었는데도 이만한 정도의 호응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전국 각 지역에서 자

51) 서광은(1995),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pp.208-209.

생적인 문맹퇴치운동, 야학운동 등도 크게 일어났다는 사실도 주목을 요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나의 운동적 성격으로 발전해 나갔기에 일제의 통제가 가해진 것이라 할 수있다. 그러나 이러한 한글계몽운동에 대해 행사위주라는 비난도 만만찮았던 것 같다. '서울에 와서 공부하다가 방학에 고향으로 귀가하는 중학생'들을 학생계몽대나 문자보급반으로 만들어 신문사의 간판을 가지고 문맹퇴치, 농사개량에 나서게 하고 소비절약, 금주·금연 등을 내용으로하는 강연, 좌담 등의 선전 사업을 하고 그들의 활동에 대해 수십회씩 연재보도하곤 했다는 것이다.⁵²⁾ 계급주의 노선이나 신채호류의 투쟁론 쪽 입장에서 본다면 《동아일보》의 기획인 브 나로드 운동은 한낱 '진정한 계급적 각성을 마비시키고 투쟁의식을 좀먹는 결과'를 낳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상록수>가 농민운동의 본질에서 정도를 걸어가지 못했다 하더라도 카프의 어떤 농민소설보다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갔던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만천하 독자의 파기록적 감격과 찬탄'을 받았다고 자찬하는 신문사 측의 광고와 1936년 6월에 영화로까지 제작이 시도되었던 정황을 살펴보면, <상록수>는 농촌소설로서는 가장 절정에 이른 작품이었다고 할 만하다.

둘째는, <상록수>가 독자적 공감대를 넓히게 된 외적 요인은 실화를 극화하였다는 데 있다.



숙부가 낙향하기 전부터 이 부락에는 동네 중견청년들이 조직체가 있어서 계몽운동, 농촌운동을 활발히 하고 있었는데, 숙부는 이 운동이야말로 우리 청년들이 나라와 겨레를 위하여 반드시 하여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중략)

1934년에는 <직녀성>을 탈고하였는데, 그 무렵 신문과 잡지에 수원군 반월면 천곡리에서 최용신이라는 한 젊은 여성이 농촌계몽운동을 하다가 과로 끝에 병을 얻어 아깝게도 요절하였다는 기사를 보고 부곡리와 천곡리를 '한곡리'와 '청석골'로 연결시켜 작품 <상록수>는 이루어졌다.⁵³⁾

<상록수>에 묘사된 한곡리와 청석골이 각각 부곡리와 천곡리를 배경모델로

52) 리용필(1993), 「조선신문 100년사」, 나남신서, p.114.

53) 심재영(1976), 「숙부 심훈」, 「상록수」 부록, 을유문화사, pp. 404-405.

하였고, 남주인공 박동혁은 당시 충남 당진군 송악면 부곡리 주변의 젊은이들에 얽힌 실화를, 여주인공 채영신은 당시 신문에 보도되었던 천곡리의 최용신씨의 존재와 활동에서 소재를 취하였다는 사실이 독자공감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이 작품의 여주인공이 실제인물을 모델로 했다고 해서 소설적 전망까지 현실적 전망과 일치한다고 볼 수는 없다. <상록수>는 어디까지나 일제당국의 허가 조건에 맞게 맞추어진 작품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작품을 두고 1930년대가 지나는 농촌현실과 괴리된 허구적 전망에 대해 혹독하게 비판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작가 자신도 이 점을 의식하였음이 작품 안에서도 드러난다. 작품의 한 대목을 보자.

“그러나, 현재의 정세로 보아서 어느 시기까지는 계몽운동과 사상운동을 절대로 혼동해서는 안됩니다. 계몽운동은 계몽운동에 그칠 따름이지 부질없이 혼동해 가지고 공연한 데까지 피해를 끼칠 까닭은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하고 단단히 주의를 시킨다. 그 때에 한 구석에서,

“에그 추워”

하고 일부러 어깨와 목소리를 떠는 학생이 있었다. (19 쪽)

신문사 측의 처지를 고려해야 하는 브나로드 운동의 주도자들은 모임을 정치적 성격으로 끌고 가서는 일제 당국과의 마찰을 피할 도리가 없음을 잘 안다. 그러나 그러한 타협주의적 정황을 한 학생의 우회적 반발로 차분히 묘사했던 작가의 내심은 사실 쓰고자 하는 내용이 따로 있음을 암시한다. 그러므로 실제의 인물 최용신이 걸어야 했던 노력의 대가에 비해 현실의 전망이 개선될 조짐이 거의 보이지 않았음⁵⁴⁾에도 <상록수>의 여주인공의 죽음이 비장하게 의미있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상록수>의 농촌인식의 한계일까는 의문스럽다. 현실적으로 전망이 차단된 상황에서 많은 독자들을 가치지향적으로 이끌어

54) '형의 회생된 자리에 그 동생이 수업하고 썼는 자태는 눈물겨움이 없이는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이 학원도 인가문제로 인하여 한 달 후에는 폐쇄하게 되리라 하니 한심뿐이라. 金敎臣(1983), '샘골 탐방기', 《성서조선》 123호, p.121.

내기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더구나 신문연재소설을 통한 귀감으로서야 말할 나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2) 小英雄的 敘事主體의 意志

문학 작품이 지닌 공감 요인은 작품의 인물이나 주제 또는 표현 등에서도 찾아 볼 수 있는데, <상록수>가 지닌 작품 내의 공감 요소를 살펴 보기로 한다.

첫째, <상록수>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 '소영웅적이며 진보적인' 인물로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작가가 의도한 바이면서 충실히 드러난 인물의 특징으로 독자대중의 선망적 서사주체로 등장하고 있다. 특히 여주인공 채영신의 이미지는 너무나 헌신적이어서 순교자적 이미지를 갖는다. 채영신의 귀향은 인간의 모든 세속적 행복을 포기한 바닷 위에서 이루어진다. '민족운동가로서의 농촌 운동가의 사랑의 숭고함'은 기존의 봉건적 혼인관계를 거부한다. 아버지 뜻에 따라 약혼했던 김정근과의 혼약을 파기하고 농촌계몽을 위해 헌신하는 기독교적 순교자의 이상을 선택한 것이다. 민족주의적 사상과 결합된 기독교적 순교의식은 현실 초월적인 존재와 행동의 주체로서 독자대중의 '대리체험'을 가능케 하는 '선망의 대상'이 된다. 텍스트 안의 심미적 주체인 독자들은 모든 현실적 악조건을 타과할 이상적 모델을 통하여 평범한 삶으로부터 일탈하고자 한다. 유사한 상황 안에서의 주인공의 성공적 행동의 재현은 심미적 주체로 하여금 서사주체를 자신의 삶의 과정으로 끌어 들여 그의 행위를 선망하고 모방하고자 하게 하는 효과를 낳는다.⁵⁵⁾

<상록수>의 주인공들만이 아니고 <영원의 미소>의 주인공들도 영웅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까닭을 심훈의 다른 글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그의 수필 「조선의 영웅」에서 '농촌에서 야학을 하는 젊은이들'을 '농촌의 소영웅'이라 하면서 작가 자신이 '시대의 기형아인 창백한 인텔리임'을 자조하는 내용⁵⁶⁾의 글을

55) 김종신(1994), 前揭論文, p.79.

56) 심훈(1993), '조선의 영웅' <한국대표현대수필선>, 변양사, pp. 215-216.

실고 있는 데서 <상록수>의 주인공을 영웅적으로 그리게 된 배경과 작가의식을 알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상록수>의 농촌계몽의식은 이광수의 <흙>에 나타난 허승의 계몽의식에 닿아 있다고도 할 수 있다. <상록수>의 전편이라 할 수 있는 <영원의 미소>에는 다음과 같이 주인공의 농촌계몽의식이 드러난다.

이것이 조선의 농민이다. 도회의 양반들에게 외씨같은 이밥을 먹여 주기 위해 저 밭에서 논에서 대대손손이 등이 휘고 뼈가 으스러지도록 일을 하는 것이 농민이다. 그리고 그 멧가로 강조밥, 콩보리밥도 제때에 못 얻어먹고 짐승도 안 먹는 풀뿌리를 캐고 나무껍질을 벗겨 먹다가 부황이 나고 똥구멍이 막히는 것이 누구냐?
오오 농민이다! 저 사람들을 저대로 내버려 둘 것이냐? 그렇다. 나부터도 그들의 속으로 뛰어들어야 겠다.⁵⁷⁾

<영원의 미소>는 말하자면 <흙>과 <상록수>의 중간단계의 농촌계몽소설이라 할 수 있다. <상록수>가 발표되기 직전 이 작품의 위와 같은 대목에서 농촌계몽의 주제의식이 얼마나 절박하고 강렬한 영웅주의를 필요로 하게 되는가 짐작할 수 있다. 농민을 위해 살아야겠다는 피끓는 봉사와 희생정신은 민족주의 지도자상이라 할만 하지만, 농민이 도시인들 때문에 고생하면서 살아왔다는 생각에는 계급의식이 잠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허승이 단순히 자신의 애정파탄을 빌미로 농촌에서 새로운 갱생적 삶을 기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그러나 허승이 농민을 바라보는 시각과 <영원의 미소>나 <상록수>의 영신의 시각이 크게 다르지 않음은 이러한 '소영웅'적 정열에 호소하려는 작가의식이 깔려 있기 때문일 것이다.

비범한 인내심과 사랑의 실천 헌신적인 박애정신으로 채영신은 모든 농촌계몽지도자들 곧 1930년대 청년들의 참된 삶의 귀감이 된다. 농촌계몽의 귀감으로서 여주인공의 영웅적 이미지는 <흙>에 나오는 여성들이 허승을 무작정 사모하고 따르는 해바라기성 의타심을 버리지 않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드러난다. 남자도 하기 어려운 일을 주도해 나가는 채영신의 당당한 모습은 당대로선 상상하

57) 심훈(1980), 「영원의 미소」, 삼중당, pp.276-291.

기조차 힘든 일면이 있다. 페미니즘에 대한 논의가 매우 활발해진 1990년대 이후조차도 여성이 계몽사업을 주도하는 일은 흔치 않은 일이기 때문이다. 영신의 진보적인 성격은 신문사에서 주최한 결과보고대회에서 여성을 마지막 순서로 안배하였다는 이유로 나서기를 거부한다든지, 동혁과의 애정관계에서도 먼저 편지를 보내고 동혁이 사는 한곡리를 주저없이 먼저 방문하는 데서도 나타난다.

바로 이러한 '강하고 진보적인 여성상'이야말로 <상록수>가 대중독자의 공감대를 확보하게 된 요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주인공 채영신의 삶이 특이한 만큼 향간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다.

둘째로, <상록수>의 공감 요소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영신이 기독교적인 자기희생과 사랑을 몸소 실천에 옮기기는 모습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여자신학교 학생 채영신이 기독교청년연합회를 결성하여 농촌운동에 투신하기로 결심한 것은 민족운동가나 사회주의 운동가가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박애정신의 실천하기 위한 행동이었다. 그녀의 마음에서 항상 떠나지 않는 생각은 '나는 하느님의 사도다!'라는 신앙적 결의였다. 그녀가 온갖 어려움과 역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끈뭇하게 지탱해 나갈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신앙의 힘이 었다.

전통적 민간신앙이 외세와 함께 들어 온 기독교에 대해 배타적이었던 일반적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채영신의 희생적 봉사적 삶이 의미를 갖고 공감을 얻게 된 것은 기독교주의를 선교하는 또 다른 효과를 갖기도 한다. 개화기 이후 1920년대까지의 소설에서 기독교가 별로 수용되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1930년대 장편소설의 기독교 수용은 꽤 활발하고 폭넓은 편이었다.

이광수의 장편 <무정>에서 선형의 아버지는 기독교 장로이면서 기생침을 거느리고 양심이나 내면의 삶보다 체면이나 위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위선적인 인8물로 묘사된다. 염상섭의 <삼대>에서 조상훈은 교회장로이면서 제자와 친구의 딸을 첩으로 거느릴 뿐만 아니라 매춘업소인 '매당집'을 자주 드나드는 파렴치한으로 묘사된다. 1920년대 동반작가의 소설, 경향소설, 카프의 소설에는 기독교는 민족의 단합을 이간질하는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으로 비판받는다. 주요섭의 <인력거꾼>은 병원 안에서 미국인 전도사를 신랄하게 비판하는 노동자

가 나온다. 이러한 부정적인 시각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후반으로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대폭 생활 속에 확산됨에 따라 많은 기독교 단체들이 생겨났고 그에 따라 순기능적 측면도 많이 생기게 된 것이다.

○ 영신은 이슬이 축축이 내린 예배당 층계에 엎드려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 '주여 당신의 뜻으로 이곳에 모여든 귀엽고 사랑스러운 어린 양들이 오늘은 그 삼분의 일이나 목자를 잃게 되었습니다. 다시 어둠 속에서 헤매일 수밖에 없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 가엾은 무리가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도 버리지 마시고 다시금 새로운 광명을 받을 기회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오 주여 저의 가슴은 지금 메어 질듯 합니다. (연재 제62회)

채영신의 봉사적이고 헌신적인 박애정신은 이와 같이 절대자에 대한 간절한 기구로서 가능하였다. 민족을 위하고, 가난한 농민을 위한 희생적 계몽의 실천은 외래종교에 귀의함으로써 가능했다는 사실은 아이러니컬한 일이다. 한편 절대적 사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처녀의 몸으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이웃을 위해 혼신을 다한 채영신의 삶은 실로 고귀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채영신의 삶의 방식이 독자들에게는 낯설지만 경이로운 체험을 가능하게 해 주었다. 대중적인 독자들은 기독교적 박애정신과 가난한 이웃에 대한 숭고한 이념이 범민족적 차원으로까지 확대되어 경험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그러한 사랑의 실천이 민족적 농촌계몽운동이라는 사회적 운동으로 전개되었던 탓에 나름대로 일본에 대한 배타적 민족 의미를 함축하게 된 것이라는 생각이다.

셋째로, <상록수>의 내적 공감대 형성의 요소는 채영신과 박동혁간에 이루어지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

두 청년 남녀의 사랑은 막중한 민족계몽이라는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는 동지애적 이념과 함께 하고 있다는 점에서 세속적 연애 감정과는 다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장면은 꽤 자극적이다.

○ 동혁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앞을 가누지 못하더니 그 유착한 몸이 폭 떨어지자 영

신의 소담한 손등은 남자의 뜨거운 입김과 축축한 입술을 느꼈다. 영신은 온몸을 달팽이처럼 오므라뜨리고는 눈을 사르르 내려감고 있다가, “참, 이 바닷가엔 왜 해당화가 없을까요?” 하고 딱전을 부리며 살그머니 손을 빼어내려고 든다. 그러나 그 손끝과 목소리는 함께 떨어져 나왔다. 동혁은 두 팔로 영신의 어깨와 허리를 버쩍 끌어안으며 “해당화는 지금 이 가슴 속에 새빨강게 피지 않았어요?” 하더니,

불시의 포옹에 벅차서 말도 못하고 숨만 가쁘게 쉬느라고 들먹들먹하는 영신의 젖가슴에 한아름이나 되는 얼굴을 푹 파묻었다. 영신은 생후 처음으로 경험하는 남자의 뜨거운 입술과 소름이 오싹오싹 끼치도록 근지러운 육체의 감촉에 아찔하게 도취되는 순간 잠시 제 정신을 잃었다. (연재 제58회)

- 영신은 그만 동혁의 가슴에, 그림고 그림던 그 널따란 가슴에 얼굴을 파묻었다. 동혁은 두 팔로 영신의 어깨를 힘껏 끌어안았다. (연재 제92회)
- 동혁은 사랑하는 사람의 여윈 뺨과 이마에 입을 맞추었다. 영신은 눈을 내리 감고 뜨거운 키스를 받았다. (연재 제121회)

그들의 사랑은 위에서처럼 꾸준히 지속되면서 심화되어 간다. 농촌계몽운동이라는 현실적인 무거운 짐을 함께 짊어지고도 그러한 이상과 함께 사랑은 더욱 뜨거워지고 헌신적인 것이 된다.

이런 동지애적 사랑은 조포석의 <낙동강>에서도 구현된 바 있는 것으로, 마지막 장면에서 맞게 되는 영신의 죽음은 독자들에게 장엄한 숭고미를 느끼게 한다. 그들이 연애를 하는 데 소모되는 정력이나 결혼생활, 개인의 향락을 위해 허비되는 시간을 온통 농촌사업에 바치고자 한 만큼 그들의 사랑은 고귀한 것이다. 현실적 악조건 속에서도 사랑을 뜨겁게 지속시켜 준 것이 있다면 바로 이 농촌계몽이라는 이상(理想)이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박애와 희생의 실천 근거가 되는 ‘기독교 사상’과 ‘선구자 의식’이다. 전자는 채영신으로, 후자는 박동혁으로 대변된다. 이 두 사람은 동일한 사업에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투신한 동지이고 드디어는 약혼자 관계로까지 발전하지만, 두 사람이 가지는 이념적 기조는 서로 달랐다.

넷째로, <상록수>의 공감 요소는 주인공들이 확고한 선구자 의식을 가지고 이를 실천한다는 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박동혁과 채영신은 <흙>의 허승이나 <고향>의 김희준과 다르다. 허승은 김갑진이나 백선희 또는 윤정선을 붙들고는 입이 닳도록 사상적 설득을 하지만, 농민을 상대로 해서는 그런 설득을 한 적도 없고, 그 개조를 위해 노력한 적도 없다. 농민에 대해서는 막대한 물질적 시혜자이자 절대적인 지도자, 초현실적 영웅으로 군림하는 형국이었다. 신분부터가 변호사에다가 장안의 내부호의 사위이니 농민들과 마구 어울리기도 실상 거북한 처지였다.

실제로 허승은 비록 농촌에 들어가 살맛정, 농민들과 동지적 유대를 맺거나, 호형호제하는 일은 전혀 없었다. 자기 고향 마을인데도 그는 농민들로부터 절대적으로 추앙받는 지도자 내지 영웅적 존재로 군림하면서, 농민들과는 좀 격이 다른 위치에 있고자 했다. 그의 농촌사업이 유정근이라는 방해자 앞에서 너무도 쉽게 무너진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⁵⁸⁾ 이기영의 <고향>에 등장하는 김희준도 전략적 인물이며 매개적 역할을 할 뿐 표나게 선구자 의식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난다.

<상록수>에서 마지막으로 작품 내적 공감대 형성은 농촌운동에 대한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신문연재 중이나 연재 후에도 이 작품은 전국 남녀학생들에게 자극제가 되어 농촌운동을 활발하게 하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록수가 지상(紙上)에 발표되자 동네 청년들은 자기네들이 하는 일과 비슷한 일들이 작품화되어 세상에 알려짐에 용기 백배하여 더욱 열심히 일하던 중 그 다음 해인 1936년 9월 16일 숙부의 돌연한 별세는 청년회원들과 전동민들에게 큰 비애와 충격을 주었다.'⁵⁹⁾는 기록이 그것을 뒷받침한다. 심훈은 자신이 직접 애향가를 지어 마을청년들에게 일상적으로 부르게도 하고, 소박하고 평민적인 생활로 농민들과 격의없이 지냈었던 만큼 그들에게 희망과 이상을 주고 싶어했던 것이다.

이상과 같이 <상록수>의 독자적 공감대는 작품 외적으로는 <동아일보>의 브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서의 행사 기획성, 그리고 실제 인물의 취재라는 사실

58) 임영환(1995), 「한국현대소설연구」, 태학사, pp.168-170.

59) 심재영(1974), 前掲書 p. 405.

성에 놓여 있었다. 작품 내적으로는 일종의 목적성을 띤 작품이면서도, 소영웅주의적 진보적인 인물의 숭고성, 기독교적 박애정신과 희생, 청춘남녀의 연애담으로서의 감각성, 선구자 의식의 고취 등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작품이 여타의 농민소설에 비해 독자 공감성이 폭이 가장 컸던 것은 농촌계몽이라는 시대적 현실적 요청과 애정의 모티프가 우아하고 숭고한 느낌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면서 독자들에게 선망성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잘 살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IV. 戀愛小說의 大衆的 共感要素

이어서 김말봉의 <찔레꽃>이 1937년 3월 31일부터 1937년 10월 3일까지 129회로, 박계주의 <殉愛譜>가 1939년 1월 1일부터 1939년 6월 17일까지 162회로 《朝鮮日報》, 《每日新報》에 각각 연재되었던 현상을 주목하여, 삶의 온정성을 일반대중의 수준에서 그들 나름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도덕적 건강성을 일깨운 것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찔레꽃>이 인기를 누렸던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중요한 점은 문학이 가장 오랜 동안 빈번하게 다루어 온 주제 중 하나인 애정갈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었다는 점일 것이다. '나뭇군과 선녀', '우렁색시' 등의 구비문학적 애절한 혼사담과 고대 설화적 잔영이 그 유래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는 고대소설 연구에서도 자주 거론되는 '혼사장애주지(婚事障礙主旨)'의 범주에 드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고대소설에서 남녀 연애담이 대개 일정한 시험과 시련을 거친 후 합혼(合婚)에 이르게 되듯 현대의 통속소설의 대부분 연애담은 그러한 구비문학적 전통에 따라 해피엔딩으로 마감하는 작품들이 많다.

예를 들면, 근대소설의 본격적인 시작으로 평가되는 장편 <무정>도 이형식-박영채-김선형의 애정 삼각관계가 주된 골격을 이루는 작품이다. 박영채가 고대소설적 시련을 겪고 동경유학생-피아니스트의 삶으로 성공하게 되는 것도 형태만 바뀌었을 뿐 시련담의 연장 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순애보>나 <마도의 향불>, <화관>, <사랑의 수족관> 등 대다수의 신문연재 연애소설의 연애는 혼사시련담으로서의 골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찔레꽃> 역시 혼사장애주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작품이다. 그러나 남녀 주인공들이 약혼상태에서 거꾸로 파혼에 이른다는 혼사실패담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여타의 연애성공담과 좀 다르지 않은가 한다. 즉 <찔레꽃>은 남녀 주인공의 애정파탄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통해, 가장 우아하고 이상적인 커플이었다고 생각되었던 연인도 서로의 험한 역경과 오해를 초월하는 굳센 사랑이 없이는

혼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감계(鑑戒)를 남긴다. <찔레꽃>의 독자는 처음에 정순과 민수의 관계를 우아한 미적 대상으로 선망하게 되지만, 그들이 서로 멀어지면서 일어나는 오해와 불신의 심화과정을 통해 안타까움과 동정심을 품게 된다. 그러다가 경애와 경구의 개입으로 돌이킬 수 없는 파경에 이르게 되는 마지막 장면에 가서 '사랑의 진실'에 대한 발견과 독자 자신의 입장을 반성하게 되는 감계의 단계에 이르게 된다. <찔레꽃>의 공감성은 바로 이러한 동정과 감계의 효과를 유발시키는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1930년대 연애 소설 가운데 대표적인 작품으로 박계주의 <순애보>와 같은 순교적인 연애 갈등형 소설을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낭만적인 작품이 두드러진 작품으로서 1940년대에 가장 많이 읽힌 소설 중 하나이다⁶⁰⁾. 이 작품에서는 진정한 삶의 질서를 회복시키자는 폭넓은 의미로 '봉사'의 모티프와 함께 '사랑'의 모티프가 등장하기도 한다. 이 작품에서 남녀간의 사랑은 종교적이고 희생적인 박애 정신에 의해서만 모든 장애물을 뛰어 넘을 수 있음을 가르쳐 주려 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적 계몽성을 띠기도 한 작품이다. 기독교적 박애주의를 주제로 내세운 이 소설은 계몽적 입장에 서서 설교한다. 그러나 설교는 지루하지 않고 감미롭다. 사랑의 무대로서 금강산 절경의 묘사와 어울리는 그들의 대화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선남선녀의 것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순애보>는 연애 소설이면서 종교적 계몽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현실적 연애갈등을 뛰어 넘는 이상적인 연애 심리가 독자의 심미적 요소로 작용한다. 눈먼 애인을 위해 헌신적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단순한 이성간의 연애를 넘어선 휴머니즘적인 실천으로 숭고미를 보여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그러한 숭고미가 1930년대 현실적 정황 속에서 설득력 있게 그려지는 것이 아니라, 금강산이나 해수욕장 산간벽지 외딴 곳 등을 배경으로 현실과 차단된 이상적 공간에서 이상형의 주인공들에 의해서만 감상주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만큼 '통속미'로 변질되면서 단순한 연애소설임을 면치 못한다. 그리고 표면적으로 내세운 기독교적 휴머니즘과 통속적인 애정행각의 괴리는 이 작품의 의도를 약화시켰다.

60) 한국사전연구소(1995), 前掲書(자료편), p. 1124.

1. 同情과 鑑戒의 效果 <찐레꽃>

<찐레꽃>이 《동아일보》에 연재되었던 때, 이 작품이 매회 연재될 때마다 독자층의 관심은 신문연재 역사상 유래없을 만큼 높았다. 김말봉의 딸 전혜금 씨는 '당시 나는 동래 일신여학교 학생이었는데, 점심시간이면 수십 명이 도서실에 몰려가 하나뿐인 신문을 보려고 아우성을 치다 나중에는 한 학생이 걸상 위에 올라가 낭독을 했다'⁶¹⁾고 회상할 정도였다.

이것은 당시 <찐레꽃>에 대한 독자들의 관심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주석 대목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글은 <찐레꽃>이 얼마만큼 독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는지 알게 한다.

김말봉씨 장편 <찐레꽃>이 신문에 연재될 때-하로만 걸러보아도 큰일이 난다.

"찐레꽃이 왜 오늘 안실었서요."

"재발 다른 것은 다 빼고라도 찐레꽃만은 꼭꼭 실어주시기 切欲하나이다."

小説에 잇서 더구나 長篇小説에 잇서 '재미'란 것-젊은 青年, 늙은여편네, 學生할 것 업시 수업는 讀者를 한목으로 몰아가지고 갈 만한 '재미'란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다.

그리고 <찐레꽃>은 그 豪大한 構想과 多彩로운 曲折이 한 번 읽으매 순한 人間은 좀채 머리 속을 收拾할 수 업슬 地境으로 複雜하다.

朝鮮의 作家는 이야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 그래서 長篇을 쓸려면 무척 애들을 쓰는 模樣인데 金末峰씨의 長篇은 이야기가 못하고도 남음이 잇는 것이 워선 壯하고 그나 그뿐인가. 재미-이것은 金末峰씨 小説만이 가진 魅力이다.

小説에 多分히 '재미'가 加味되면 무슨 그 小説이 몹씨 通俗的이고 低級해서나 그런 줄 알지 우리의 長篇小説家 諸氏는 언제나 입으로 無視하는 이 재미를 그들의 小説에 옮겨내으려고 慫慂히 뒤으로 試圖하지만 아마 慾心대로 成功하지 못하는 게 普通이다. 이 한 점으로 보더라도 長篇小説에 잇서 金末峰씨의 存在는 女王格이요, 男性作家들이 함부로 넘겨보지 못할 境地라고 생각한다.⁶²⁾

61) 양평(1981.10.20), '여류작가가 쓴 최초의 인기소설', 《한국일보》.

62) 이선희(1938. 11. 9), '김말봉씨대저 <찐레꽃>평', 《조선일보》.

이처럼 <찹레꽃>은 당시 학생들뿐만 아니라 문학을 평론하는 사람들까지도 많은 관심의 대상이었다고 할 수 있다.

1) 사랑의 錯誤劇

<찹레꽃>이 재미있는 소설로서 인기를 끌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인가?

독자의 처지에서 인기를 끌게 된 창작기법이나 방법상 전략을 발견하기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 대체로 통속적 모티프들이 영성하게 짜여 있어 그 구성상 헛점이 쉽게 발견됨으로써 그 매너리즘적 특성을 발견해 낼 수 있다. 예를 들면 우연의 낱말, 신파극과 같은 감상성, 멜로물적 성격을 매너리즘적인 요소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찹레꽃>의 서술방식은 꼭 매너리즘적이라고만 할 수 없는 근대적 드라마로서의 극적인 효과가 나타난다. 그것은 상투적인 신파조로 된 여타의 연애소설과 <찹레꽃>을 어느 정도 구별하게 해 주는 것이다. 물론 <찹레꽃>에도 우연성이 매우 잦아 우연적 만남, 우연적 사건에 의해 스토리가 전개되어 가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도 <찹레꽃>이 독자적 공감대가 다른 작품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넓혀지게 되었다고 여겨지지는 않는다.

유독 인기를 끈 <찹레꽃>이 갖는 특별한 창작 기교가 있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것은 우연성을 적절하게 활용하면서 청춘남녀의 오해를 일으키도록 하여 작품의 재미를 추구하는 데 있지 않나 생각된다. 청춘남녀란 원래 감수성이 예민한 존재이고 상대방의 애정에 대해 변화난측한 상태에 빠지기 쉬운 때이다. 상대방의 애정의 깊이에 대해 신뢰하면서도 시험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때이기도 하다. 그런 만큼 작은 실수에 대해 (특히 이성문제에 관한 한)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예민한 상황에 빠지게 되기 쉬운 것이다.

<찹레꽃>의 공감요소는 첫째로, 애정갈등의 원인으로 인한 사랑의 착오극으로서의 오락성을 들 수 있다.

아버지의 약값과 가족의 생계비를 마련해서 부양해야 하는 전문학교 출신 안정순과 경성제대 수리과 졸업반생 이민수는 서로 약혼을 맹세한 사이이다. <찹

레꽃>에서 애정갈등의 원인이 시작되는 전반부 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안정순은 은행 두취인 조만호집에 가정교사로 취직한다.
2. 미모의 정순은 조만호의 약육의 대상이 되면서 병식에 누운 조만호의 처와 갈등하게 된다.
3. 민수는 엘리베이터에서 나오다 조만호의 딸 경애의 발을 실수로 밟는다. 거기에는 안정순에게 호감을 사기 위해 딸과 함께 쇼핑을 나온 조만호가 있었다.
4. 민수는 아버지 이도사의 밀양토지 경매문제로 조만호를 찾아 사정하지만, 조만호는 거절하고 경애는 민수에게 호감을 갖는다.
5. 민수는 경애를 통해 토지 경매건을 부탁하게 되고, 경애를 통해 딱한 사정을 알게 된 정순은 경애와 조만호에게 직접 사정한다.
6. 조만호의 접근을 경계하면서도 정순은 민수를 외사촌 관계라고 속인다.
7. 정순이 조만호에게 눈물로 호소하는 장면이 침모에 의해 조만호처에게 전달되자 히스테릭한 조만호처는 둘의 관계를 크게 의심한다.
8. 정순의 '외사촌사이'라는 고백에도 의심을 품은 조만호처는 안정순을 반 달치 월급을 주고 내보낸다.
9. 조만호처가 경애에게 사실을 확인하려 하자 딸은 정순이 아버지에게 민수의 처지를 사정했다는 사실만으로 애인 관계라고 짐작하고 어머니에게 단정적으로 '약혼자가 따로 있다'고 말해 버린다.
(조만호처는 안정순의 말을 믿지 않고 경애의 말만 믿고 받아들인 것 같다. 두 가지 정보를 연결지어 보지 않는다)
10. 정순과 남편과의 관계에 의심이 풀린 조만호처는 마침 아들 경구가 여행에서 돌아온다는 소식에 조만호를 통해 정순을 붙잡게 하고 그녀는 취직난을 생각하고 다시 있기로 한다.
11. 조만호가 어찌된 연유인지 묻자 안정순은 '경애씨는 잘 압니다'라고 하여 문제(민수와 정순의 관계가 외사촌 또는 애인관계로 알려지고 있다는 사실)를 회피함으로써 또 다른 오해를 낳도록 방치한다.(자신이 조만호에게 '외사촌사이'라고 말했음에도 경애에게 '민수와의 관계를 속인 안정순'으로 오해받고 있음을 알지 못한다.)
12. 경애는 자신을 흠모하는 윤영환에게 민수를 돕기 위해 이도사 땅을 매입케 했다. 정순과 민수와의 관계를 애인사이로 짐작하고, 토지 매매건에 무관심하는 바람

에 토지는 경매 가격으로 영환의 마음에게 팔리고 만다.

약 6개월 동안 129회로 연재되었던 <찔레꽃>이지만 대략 발단부의 화소만을 살펴볼 때 드러나는 것은 장편치고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장편소설이 대개 다양한 사건과 인물을 등장시켜 나가는 것에 비해 매우 특이한 구성방법이다. 감정과 오해와 불신, 증오의 양상으로 본다면 복잡하게 꼬여 있지만 사실 핵심 사건은 믿기지 않을 만큼 단순하다. 이렇게 단순한 선조적(線條的) 구성은 추리 소설에서도 자주 보이는 것이지만, 여기서는 연애가 중심사건인 만큼 증거나 명백한 확인보다는 거의 심증만으로 또는 제3자 개입으로 인한 와전이 중첩되면서 전개되어 나간다는 점이 다르다.

전체 이야기를 아주 혼란스럽고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작가의 서술 기법이라 하겠지만, 그 기법이 뛰어난 데 비해 이야기의 핵심은 의외로 단순한 데 있다. 전반부 정순과 민수의 관계가 그것이다. 그들은 정순이 가정교사로 들어가게 되면서부터 심각한 시련과 시험을 거친 끝에 결국 헤어지게 되고 만다. 이 둘 사이가 약혼자임에도 왜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가? 그것은 둘 사이가 약혼자라는 명백한 사실이 감추어지는 데서 비롯된다. 결혼시련담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이런 장애물들이 어떻게 극복되고 마침내 혼인이 성사되는가는 오랜동안 구전되어 온 혼사 모티프지만 <찔레꽃>은 불행히도 그런 혼사장애주지가 되지 못하고 말았다는 데서 혼인실패담임을 알 수 있다. 혼사의 금기를 어긴 사람은 남녀 모두이다. 처음에는 정순이 잘못을 저지르고 고통을 받는다. 후반부에서는 민수가 경애에게 외사촌 사이라고 번복함으로써 실수를 저질러 양측의 고통을 가중시키게 하는 역할을 한다. 말하자면 사태가 악화되기까지 자신의 거짓말을 바로잡지 않았던 정순에게 애초에 잘못이 있다. 그것을 의아스럽게 지켜보기만 하다 결국 경애의 집요한 접근과 정순에 대한 와전된 정보를 믿고 그녀와의 관계를 외사촌 사이라는 거짓에 감정적으로 동의해 버린 민수의 책임도 크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민수로서는 있을 수 있는 자포자기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자신이 집안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 학비는 커녕 생계마저 어려운 처지에 빠진데다가 안정순이 귀공자같은 경구의 사랑을 받고 있다니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자탄의 심정으로 외사촌 사이라는 거짓에 동조하고 만 것이라고 여겨지

기 때문이다.

<절레꽃>에도 안정순과 민수가 처음부터 약혼자로 소개되지만 혼인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우선 그들은 아직 학생인데다 가난하다. 그런 처지의 그들은 지나치게 매력적이고 이상적이어서 많은 남녀들의 흠모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가난한 학생의 처지인데다 민수의 경우 시골의 토지가 경매에 넘어가 생계마저 막연해 진다. 이러한 현실적 조건만으로도 두 사람의 혼인은 현실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다. 그런데다가 안정순이 가정교사로 취직한 집에는 귀공자같은 경구가 진실한 애정을 가지고 그녀에게 접근한다. 경구의 누이인 경애마저 민수를 처음 본 순간부터 그를 흠모하게 된다. 이러한 어려운 시험에 빠진 안정순과 이민수는 실로 두 사람의 애정을 확신하고 그것을 붙들기 위해 안간힘을 쓰지만 현실적으로 역부족이다. 역부족이라 함은 경구와 경애의 등장 때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안정순과 이민수의 애정에 금이 갈 만한 오해가 생겼기 때문이다. 그러한 오해는 그만큼 상대방에 대한 확신이 아직 서지 않았음을 뜻한다. 혼인하지 않은 남녀가 이성 문제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자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혼한 일이기 때문이다.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놓인 청년기의 과도적 사고는 현실을 지나치게 무시한다는 특성을 지닌다는 데 그 원인이 있다.

청년기에는 어떤 고난이나 어떤 약조건도 두 사람의 애정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장담하는 시기이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현실적 문제로 시험에 들고 결별하게 되는 일도 허다하다. 이 청년기의 불확실성의 애정관계는 합리적인 사고를 전제하지 않는다.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사람도 남녀관계에 있어서만은 이성적이지 못한 시기가 청년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혼 상태의 애정의 환상적이고 비현실적 맥락이 이른 시기부터 많은 문학작품의 소재가 되어 온 것도 어느 것 하나 확실한 것이 없는데도 확신하려고 생각하는 청년기의 특징 때문일 것이다.

흔히 사랑에 빠진 것을 주술에 걸린 것에 비유되거나 큐피트의 화살을 맞은 것으로 비유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미소년이 잠자는 사이 눈위에 미약을 발라 놓아 처음보는 대상을 사랑하게 된다는 수선화의 전설에도 그러한 사랑의 환상, 마법적 성격이 나타나 있다. 마법담에 자주 보이는 요정의 장난, 마술사의 주술

에 의해 애꿎은 청년들은 목숨을 거는 시험에 빠진다. 셰익스피어의 희극에도 <한 여름밤의 꿈(A Midsummer Night's Dream)>이나 <착오희극(The Comedy of Error)> 등과 같은 착오극이 있다. 특히 일본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작가 김말봉이 이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위의 착오극은 희극으로서 결말에 가서 모든 사실이 밝혀지면서 해피엔드로 마감한 것이다. 반면 <젤레꽃>은 뼈아픈 시련을 겪은 두 연인이 안정순의 경우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 다를 뿐이다. 안정순이 이민수의 애정을 결국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현대독자들에게 애정의 진실성에 대한 동정과 감계의 효과를 낳게 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가장 큰 독자적 공감성은 연애편계에서 빚어지는 오해와 그 긴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의 마법에 걸린 두 사람이 오해로 인해 상대방을 객관적으로 재확인하는 과정 속에서도 어느 정도 심리적 갈등이 전개되는데 그것 역시 주술적 시험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연애란 처음부터 명백한 사실이나 가시적인 모습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는 인간의 마음 특히 청춘시절의 심리적 변화는 난측하기 때문에 가벼운 오해도 풀리지 않는 매듭으로 남게 되기도 한다. <젤레꽃>의 주술적 성격도 이렇듯 이상적인 남녀 안정순과 이민수가 걸려든 마법의 시험과 거기에 대한 애정파탄이다. 바로 그점에 독자적 흥미가 대부분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작은 일에도 과민해지고 오해하게 되는 착오극으로서의 <젤레꽃>의 특징이야말로 가장 대중적 공감대를 넓히게 된 요인일 것이기 때문이다.

마법 혹은 주술에 쓰이는 물건은 마법적 원조자와 비슷한 기능을 발휘한다. 기능적 관점에서 본다면 마법만 풀 수 있다면 어떤 물건이든지 마술적 물건이 될 수 있다. 연애소설에서 사랑의 게임은 마법에 걸린 듯한 남녀간의 감정적 오해의 위험이라고 할 수 있다.

<젤레꽃>을 이처럼 전통적인 혼사장애담과 관련시켜 본다면 이 작품에서 두 사람이 걸려 있는 마법의 주술을 풀 수 있는 마술적 물건은 '정순과 민수 사이가 변함없는 약혼자다'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언제든지 밝혀지기만 하면 모든 갈

등이 해소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실을 하나의 마술적 물건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마술적 물건 이야기는 꽤 오래 구전되어 온 전통성을 갖는다. 더구나 혼인시련담으로서의 <구렁덩덩 신선비>나 <두꺼비 신랑>이야기를 염두에 둘 때 더욱 그렇다. 이렇게 볼 때 혼인시련담 가운데 시험에 걸린 남녀가 그 시험에서 벗어나가는 와중에 겪어야 하는 시련담으로 <짚레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단지, <짚레꽃>은 혼사담이지만 혼사실패담인 셈이다.

선조적(線條的) 스토리는 이처럼 인물들의 영성한 생각과 추리, 감정적 행동이 동반되면서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모든 인물의 움직임은 작가의 의도적인 상황 설정 때문에 번번히 합리화되고 만다. 예를 들어 애정관계로 복잡하게 꼬여 있는 네 사람을 자주 한자리에 있게 함으로서 긴장과 오해를 심화시킨다든지, 조만호가 최근호의 송별연에서 옥란의 추태를 목격하게 한다든지, 옥란의 복수극으로 마침내 진실이 드러나는 것 등은 면밀하게 살피면 우연과 억지가 섞여 있다. 그럼에도 상황의 묘사가 매우 치밀하고 극적인 탓에 독자는 사태의 객관적 상황을 감지하기 어렵게 된다.

<짚레꽃>이 작위적으로 오해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저급한 구성 취향이라고 단정짓기엔 이르다. 이 작품이 연재소설이라는 점을 주목하여 '그 매일의 한 회 속에 담겨 있는 흥미가 있어야 하고 클라이막스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러고도 어쨌것의 계속이며 명일본의 복선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⁶³⁾라는 특성을 백분 살려 완벽한 짜임새의 형성 방식이 개입되기 때문이다. 줄거리가 사건의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는지, 한 장소에서 다른 입장의 인물의 심리가 교묘하게 엇갈리는 장면 묘사 등은 근대적 상황 설정의 기법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무대 위에서 극적으로 펼칠 경우 대단한 독자적 심미감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짚레꽃>은 소설적 구성 방법이라기보다는 꽤 연극적이다. 이렇게 오해가 꼬리를 물고 엇갈리도록 만든 상황 설정의 기술은 셰익스피어 희비극에서도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짚레꽃>은 희곡으로 개작하여 무대에 올린다 하더라도 연극으로서 손색없는 작품이 될 것이다.⁶⁴⁾

63) 通俗生(1933. 9. 8), 前掲書.

64) 셰익스피어의 희극 <한 여름밤의 꿈>이나 <말괄량이 길들이기>, <錯誤喜劇>

2) 近代的 婚事主旨

둘째로, <절레꽃>이 갖는 공감 요소는 근대적 연애실패담으로서의 감계의 효과에서 얻어진다.

이 작품이 갖는 상황설정의 탁월함은 일어날 분류를 위해 미리 복선이 깔린다는 데 있다. 오로지 '진짜'가 언제 밝혀질 것이냐의 꾸준한 관심은 여러가지 사건을 하나의 문제로 집약시키면서 단순히 독자의 흥미에 부합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절레꽃>의 순문학적 기능은 단순한 독자의 흥미나 놀이 등 오락 취향에만 끝까지 영합하지 않고, 사랑의 비극적 결말을 통해 오히려 사랑의 진실성을 일깨워주고 있다는 데 있다. 아무리 약혼자이고 이상적인 만남이라 하더라도 어떠한 오해도 넘어 설 만큼의 깊은 이해와 용서에 대한 노력없이 사랑은 한낱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라는 교훈이 그것이다.

감계의 효과는 서사주체인 주인공들의 행위가 가치 하향적일 때 독자들이 갖는 심미감이다. 즉 혼사주지 시험에 걸린 두 남녀 주인공들의 어리석은 행위가 가치 하향적이므로 심미주체인 독자는 거기서 보다 쉽게 상대적 우월감이나 경멸성을 내면 깊숙히 품게 됨으로써 감계의 효과를 거두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감계성이 아주 열등한 서사주체에게서 발생하는 독자 공감적 특성이라면 어느 정도 대등한 위치의 인물들에게서 동정적 감정으로 인한 깨달음의 효과를 얻게 되는데 <절레꽃>의 경우 독자는 감계와 동정심이 함께 일어나면서 삶의 재인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⁶⁵⁾

<절레꽃>에 나오는 남녀간 사랑의 유형은 네 가지다.

1. 조만호가 돈을 매개로 옥란에게 품는 육체적·이기적 사랑
2. 최근호가 옥란에게 품는 무조건적인 감상적 사랑
3. 민수와 정순 사이의 정신적 사랑

등에서 보이는 엇갈린 추측과 입장이 빚어 내는 상황이 창출하는 재미는 셰익스피어극을 대중적으로 성공시켜 주는 공감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5) 김종신(1994), 前揭論文, pp. 82-109.

4. 경애와 경구가 각각 민수와 정순에게 갖는 일방적인 사랑

위의 1의 유형 전통적으로 축첩하는 부유층의 가부장적 유산물에 해당하는 유형이다. 사랑이 남자의 일방적 소유욕에 의해 가능하므로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될 수 없다. 2의 유형은 개화기의 '돈이나 사랑이나'식의 사랑의 형태이다. 즉 순정을 지닌 남자와 변절한 여자 사이의 애정 갈등이 매우 감상적이고 직선적으로 극화된 모습이다. 식민지 시대의 '상실 의식'과 결부되어 패배주의적 태도가 시대적 분위기와 어울리면서 현실 도피적 애정 감각으로 이끌어가는 '멜로물'로 과장된 비극이다. 최근호와 기생 옥란이 같은 사랑의 비극이 유행한 것은 시대적으로 볼 때, 1936년 2월 동양극장이 설립되면서 인기 절정에 이르렀다. 당시 인기를 독점하면서 공연된 연극 작품들은 <사랑에 속고 돈에 울고>(임선규 작), <어머니의 힘>(이서구 작) 같은 것들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이 연극들은 주로 기생을 여주인공으로 한 화류비련(花柳悲戀)이거나 가정 비극의 멜로드라마였다. 이런 유형에서 사랑의 진정한 의미 추구는 매우 피상적일 수밖에 없다. 기생 옥란이 최근호의 사랑보다 조만호의 돈을 욕심내려다 조만호와 최근호 양쪽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자 조만호에 대한 복수극으로 비화되는 이들 신파극은 1930년대의 사랑 형태는 아니었다.

그리고 정신적 사랑을 강조한 3의 유형은 둘 다 인텔리라는 점에서 근대적이고, 특히 정순의 대범하고 낙천적인 성격은 봉건적인 구시대 여성의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정순의 유우머 감각과 화술, 신시대 지식, 가정교사라는 직업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은 가난과 한 지붕 아래 남자들의 애정 공세, 가정 교사를 하인처럼 부리려 드는 조만호 처나 경애 때문이다. 한달 월급 50원을 받고 세 아이의 학습과 육아, 간호 일체를 담당할 그녀의 노동에 비해 조만호 가족들이 다이아몬드, 세계여행, 십만원이 드는 사업구상, 승마, 자가용, 화대 삼백원 등으로 지나치게 화려하고 사치한 삶을 누리고 있다는 점도 활달한 성격의 정순을 주눅들게 만든 현실로 작용한다. 게다가 민수마저 아버지 이도사의 토지 경매건으로 조만호에게 아부해야 하는 처지다 보니 민수와 정순의 공간적 격리는 자연 두 사람의 애정을 식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말았

다.

즉 처음에는 정순만 경제적으로 궁핍한 처지였는데 나중에는 약혼자 민수까지 하숙비가 석달치 밀리는 궁핍을 겪게 되다 보니 상황이 바뀐 것이다. 그런데 다 제3자의 잦은 개입과 방해는 그들 사이의 사랑의 진실성을 의심하게 만든다. 민수는 서로가 '자유임'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순이 자신에게 구속되기를 바랐다. 또한 정순은 겉으론 태연한 척해도 민수와 경애와의 사이를 의심하고 질투하였다. 민수와 정순은 마음 속의 의심을 품고 상대방의 진실성을 의심하면서도 그 진실성을 확인하려는 노력이나 성의를 보여주지 않았다. 상대방의 진실성을 확인하지도 않고 단지 연적(戀敵)의 등장으로 상대방의 진정한 행복을 바라고 물러난다는 이 패배주의적 자세의 이면에는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려는 이기심이 깔려 있다. 이것은 민수나 정순 양쪽에 해당한다. 다만 정순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지만 먼저 민수에게 자신의 진실을 고백하려 했다는 점에서 덜 이기적이다.

결국 이들의 사랑은 약혼자들끼리의 행동이라기엔 어쩐지 미숙하여 그들의 사랑의 진실성마저 의심스럽게 만든다. 단 한 사람의 이성을 위해 다른 어떤 이성 앞에서도 자신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윤리요 또한 용기인데도 단지 부끄러움 때문에 우유부단한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의심스럽다. 민수와 정순은 그들이 비록 근대식 교육을 받은 지식인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시련에 대한 대처 과정은 그들의 진실성을 의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그들 사랑은 진실한 것이 될 수 없다. 물론 작가는 독자들이 끊임없이 그들 사이의 사랑의 밀도를 믿게 하기 위해 간간이 정순과 민수의 입장에서 변명을 늘어 놓곤 한다. 예를 들어 정순이 한 지붕 아래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집요한 접근을 알고도 그녀가 조만호 집을 떠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설명한다. 가정교사 자리 얻기가 어렵다는 것, 또 유희더라도 50원 가운데 대부분이 아버지의 약값과 가족의 생활비로 충당되어야 한다는 것 등을 강조한다.

유형 3의 사랑은 이런 여러가지 점에서 완벽한 만남인 것 같지만 연인으로서 이상적인 사이로 발전될 수 없었다. 그들의 약혼이 파탄에 이른 것은 당연한 귀결인데도 안타깝게 여겨지는 까닭은 작가가 그들의 사랑을 보증하는 작위적인 장면을 억지로 삽입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순이 마침내 민수 없이는 살 수 없음

을 깨달았다든지, 모든 것이 '운명'임을 강조하는 대화나 해설 등은 그들이 마치 희생양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서 책임을 회피하게 만든다. 특히 이러한 피해의식은 여성인 정순 쪽이 매우 강하다. 처음에 진짜반지를 감추고 민수를 시험에 들게 한 잘못이 있었음에도 민수의 사랑은 그녀에게 '길게 가시처럼 활꺾어 주고 간' 아픈 상처로 남는다.

유형 4의 사랑은 아직 유형 3의 관계로 발전하기 전 상태의 '푹사랑'이며 '짜사랑'이다. 경애나 경구나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갖는 착각에 불과하다. 이런 착각은 결과적으로 진정한 사랑으로 발전할 수 있긴 했지만, 유형 3의 사랑을 느슨하게 하는 중요한 기능적 역할이 독자 공감적 모티프로 우선한다. 따라서 그들은 사랑을 한다기보다는 방해하는 역할을 충분히 하는 치기어린 행동만 반복되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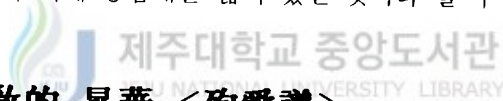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절레꽃>에 나타난 사랑의 양상들은 어떤 것도 구조적으로 현실적 공감을 준다기보다는 과거시대의 시행착오적 혼사장애담에 가까운 퇴보성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주변 여건과 상황의 설정으로 뒷에 걸린 두 약혼자들의 결혼 가능성에 대한 귀추는 향간의 흥미있는 화제 거리였다. 그만큼 치밀한 인물 배치와 기능 부여, 상황 설정은 그러한 놀이나 게임으로서의 흥미에 기여하였다. 이는 '반지 감추기'에서 빚어진 오해의 통속적 심미인데, 진짜 반지와 가짜 반지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데 꼭 필요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순간에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정순과 민수가 남남 사이라는 정보는 민수와 경애가 약혼한다는 것이 조만호에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경애에 의해 그에게 전해진다. 이런 작위적 구성은 인물간의 갈등이 복잡하게 되어 있는 탓에 독자들은 눈치채기 어렵게 되어 있다. 그만큼 작가의 서술기법은 독자들을 늘 앞질러 가고 있다는 증거도 된다.

마지막으로, <절레꽃>의 대중적 인기의 비결은 또 하나 빈부의 극단적 설정과 부유층의 호화판 생활 묘사에 있다. 가난한 고학생 연인인 정순과 민수의 처지에 비해 경애와 경구는 해외여행, 승마, 골프를 즐기는 호화판 생활을 즐긴다. 경애의 전공은 회화이고 그녀의 취미는 시내 승마질주, 경구는 세계일주 여행을

몇 달씩 하고 돌아와 농촌사업을 하겠다고 거금 10만원을 쓰고자 한다. 아이들의 생활, 교육은 모두 정순의 손을 거쳐야 하고 살림의 대부분이 다른 하인들을 고용하는 생활을 하는 경애와 경구는 봉건시대의 귀족이나 다름없다. 그런 데 비해 몇 푼의 월급과 경애때문에 민수와 멀어지게 되었는데도 일을 그만둘 수 없는 정순의 처지나 아버지의 토지경매건으로 집의 생활부담까지 져야 하는 민수의 입장은 그들의 호화판 생활에 비해 엄청난 괴리를 느끼게 한다. 이러한 극단적인 상황의 설정은 독자로 하여금 두 연인을 동정하게 하는 공감적 요인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부유층의 환상적인 생활을 간접체험하게 하고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게 된다. 조만호 일가의 사치스런 생활은 여성의 허영심을 자극하기에 충분하였기 때문에 가난한 안정순이 그 유혹을 물리치느냐 마느냐 하는 것도 또한 독자의 중요한 흥미거리였던 것이다.

지금까지 <찔레꽃>에 나타난 연애통속담을 전제로 하여 독자 공감의 요소를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 보았다. 근대적 연애실패담으로서의 동정과 감계의 효과, 사랑의 착오극으로서의 오락성, 빈부의 극단적 설정으로 인한 낮선 체험의 심미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찔레꽃>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꾸준히 독자들에게 의해 공감대를 넓혀 왔던 것이라 할 수 있다.



2. 戀愛의 宗教的 昇華 <殉愛譜>

박계주는 원래 기독교와 인연이 있는 작가로서 <순애보>는 작가 자신의 자서전적 일면을 찾아볼 수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1938년 매일신보 현상 공모에 당선되어 문단에 화제가 된 작품으로서, 연애소설의 주된 모티프인 '남녀의 사랑'을 실감나게 다루고 있다.

민병덕은 그의 논문에서 '<순애보>'는 1939년 1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되는 동안 장안의 인기를 독점했고, 그해 10월에 출판되자 초판이 보름만에 매진되는 성황을 이루었으며, 발간된 지 4개월만에 4판을 찍는 등

크게 인기를 얻었으며, 오늘날까지도 70여 판을 거듭하면서 많은 독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순애보>에 대한 독자가 많았음을 강조한다.

이어서 이 작품은 1947년에 다시 博文書館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으며, 해방 후 《新撰傑作長篇小說集》으로 발행하면서 “倭政下, 그 迫害받던 民族에게서 아름다운 꽃을 發見하고, 그를 藝術로 開花시킨 作家들의 가장 人氣높고 歡迎받은 作品들을 골라 傑作長篇小說全集을 發行한다. 이로서 메마른 우리들의 精神生活을 能히 潤澤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⁶⁶⁾라고 선언하고 그 제1회 배본을 <순애보>(上)로 삼았다. 그리고 1958년에는 성문사에서, 1967년 三中堂에서, 1978년 新明文化社에서 단행본으로 간행되었고, 1982년에 朝光出版社에서 전집으로, 1994년 一信書籍에서 단행본으로 각각 간행되었다.

이리하여 <순애보>는 계속적으로 대중 독자의 공감을 얻고 있으나 유식자 독자층의 공감은 약한 편이어서 이에 대한 본격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는 이 작품이 발표시기가 '대중소설의 유행기요 젊은이들이 일제의 압제하에서 지향점을 잃고 정신적 위안과 카타르시스를 회구하던 시기로서 적시성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⁶⁷⁾ 라고 하여 이 작품의 독자층을 젊은이를 중심으로 한 대중으로 보고 있다.

다음과 같은 이광수의 글은 <순애보>에 대한 독자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전인류의 근본문제-개인생활의, 가족생활의, 국가생활의, 세계평화의 근본 문제를 포착하려는 소설은 그리 흔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박군의 순애보는 이러한 부류의 소설의 하나다.⁶⁸⁾

1) 婚姻試鍊談

<순애보>의 독자 공감의 요소로서 주로 '선정성'을 중심으로 살펴 본 연

66) 하동호(1971), “박문서관의 出版書誌攷”, 「출판학10호」, p. 49.

67) 민병덕(1988), 前揭論文, pp. 173-174.

68) 이광수(1939), “殉愛譜序” 민병덕(1988), p. 174.에서 재인용.

구⁶⁹⁾가 있지만 여기서는 작품의 전체적 화소를 나누어 인물, 배경의 묘사, 문체적 특징 등의 분석을 통해 연애소설로서 성공한 공감적 요인들을 살펴보기로 한다.

<순애보>의 화소는 다음과 같이 전개된다.

1. 원산 바닷가에서 그림공부를 하는 최문선은 보트가 뒤집혀 죽을 뻔한 이화여전 출신의 발랄한 인순의 목숨을 구해준다.
2. 문선은 자신에게 연모의 정을 느끼는 인순과 보트를 타다가 옛소꿉동무였고 한 때 마음에 두었던 윤명희와 마주친다.
3. 문선은 독립투사인 아버지 최백산을 따라 간도로 이주했으나 아버지가 암살당하자 어머니의 삶바느질로 중학까지 마치고 원산에 휴양을 왔다.
4. 윤명희의 친구 장혜순은 철진과의 혼인으로 음악공부를 포기하려 한다.
5. 윤명희의 오빠 친구 인수는 명희에게 뜨거운 사랑을 지닌다.
6. 윤명희는 갑자기 쓰러진 최문선을 위해 수혈해준다.
7. 문선은 존경하는 명희의 부친 윤목사의 권유로 서울에서 야학일, 감화원의 일을 보며 잡지 <빛>의 발간에 관여한다.
8. 인순이 문선을 찾아 서울에 올라 와 다시 접근한다.
9. 문선은 야학에서 조선어를 가르치며 조국애를 그린 자작소설 <혈련>으로 10년 징역형을 받는다.
10. 문선이 형무소에 있는 동안 인순이 자주 면회간다.
11. 10개월 만에 출소한 문선은 감사표시로 인순의 집에 들러 방문을 연 순간 강도에게 둔기로 얻어 맞고 정신을 잃는다.
12. 병원에서 깨어난 문선은 두 눈이 실명한데다, 인순을 죽인 살인혐의를 받지만 아무도 그의 결백을 믿지 않는다.
13. 진범이 나타나 용서해 달라고 부탁하는 순간 경찰이 나타나지만, 문선은 기독교의 밀고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진범을 자기 친구라고 경찰을 속인다.
14. 도둑질하려다 인순을 살해한 강도에게 문선은 돈까지 주어 보내고 자신은 사형선고를 받는다.

69) 민병덕의 논문에서는 <순애보>를 통속적인 연애소설로 보고 주로 도발적이고 선정적인 장면들만을 중심으로 독자공감 구조를 밝히고자 하였다. 민병덕(1988), 前揭論文, pp. 164-169.

15. 철진은 장혜순이 부정한 여자라고 오해하고 장혜순은 철진이 옥련과 불륜관계를 맺고 있다고 생각하여 집을 나온다.
16. 진범이 자수로 마침내 풀려 난 문선은 명희의 장래를 위해 친구 집에 은둔하며, 윤명희는 그를 찾아 원산-함흥-북간도로 헤맨다.
17. 장혜순은 이태리대사 부인 멜폰여사에게 성악지도를 받으며 자질을 인정받는다.
18. 장혜순은 구미포 해수욕장에서 교통사고 당한 철진에게 수혈해 준다.
19. 철진은 혜순의 숭고한 사랑에 반성하게 되고 그녀에게 용서를 구한다.
20. 혜순에게 거절당한 철진은 홍수 피해지역에 구조대로 지원하여 일하다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데, 혜순이 철진의 위독전보를 받고 철진을 찾았지만 이미 죽은 후다.
21. 문선은 함흥의 친구 김영호 집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와 소설을 가르치던 중 영호의 주선으로 윤명희와 재회하여 사랑을 확인한다.
22. 명희는 문선의 눈과 손이 되겠노라고 맹세하며 문선의 <순애보>라는 소설을 대필하여 T 신문사에 기고한다.

이상과 같이 화소들을 살펴보면 <순애보>는 단순한 연애 소설이 아님을 간파할 수 있다. 형식상 최문선-윤명희, 철진 - 혜순의 연애 갈등이 중심을 이루고 있지만, 그 두 쌍의 연애과정은 혼인하기 위한 입사과정(入社過程)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즉 <순애보>는 연애를 소재로 하고 있지만 희생과 봉사라는 숭고한 종교적 삶을 구현하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이 종교적 사랑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은 청춘남녀로서 실천하기 어려운 헌신적인 정신적 사랑이 무엇보다도 우선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의 가르침은 피끓는 젊은 남녀 주인공들에 의해 그대로 실천된다. 최문선은 자신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강도를 용서하고 대신 감옥에 간다. 혜순 역시 자신을 배반한 남편 철진에게 수혈해 줌으로써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한다. 명희가 문선에게 수혈해 주는 것도 이성간의 진정한 사랑에 대해 심사숙고하게 해 주는 대목이다. 인순이 개입됨으로써 명희와 문선의 사이가 벌어지는 것은 구성상 트릭이지만 결국 명희가 문선과 재결합에 성공하게 된 중요한 단서가 수혈이 되고 있는 것이다. 남녀간의 사랑이 이렇듯 피를 나눈 절차를 거침으로써 영원히 진실한 사랑이 되리라는 생각이 <순애보>가 갖는 연애의 특

색이자 인기를 끌게 된 핵심인 듯하다. 세속적인 의미에서의 연애가 아니라 거기
에다 높고 숭고한 부가가치를 부여함으로써 많은 독자들을 낭만적 세계로 이끌
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는 남녀간의 진정한 사랑의 본질을 비껴가는 방법이지만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연애소설이 독자의 공감대를 더 갖는 것이 현실이다.

2) 官能的 插寫와 幻想적 背景

<순애보>가 청춘남녀의 연애에 기독교적 희생과 헌신적 봉사정신을 가미하
여 독자의 호응을 받는 만큼, 반대로 노골적이고 감각적인 문체와 묘사로 독자의
말초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것도 연애소설로 오랜동안 읽혀지는 이유로서 아울러
주목해야 한다.

‘질은 자춧빛 해수욕복을 입은 인순은 탄력있는 육체의 곡선을 인어인양 싱싱하게 노
출시키며 문선에게 미소를 보낸다.’ (연재 제1회)

<순애보>의 연재 일회 분부터 보더라도 독자의 눈을 맨먼저 끄는 것은 드넓
은 원산해수욕장 백사장과 수영복 차림의 건강한 청춘 남녀들의 아름다운 모습
이다. 다음 대목을 보자.



가. 이삼보 뒤떠러져서 걷는 명희와 문선은 맨몸에 아모것도 걸머지지 안었다. 지로루
모자를 빗두름이 쓰고 양복을 입은 명희의 양장한 자태는 오늘따라 더욱 아름다왔
다. 불룩한 젖가슴은 부프러 오른 두 개의 유방으로 양복저고리 우에 곡선을 그려
주고 있다.(연재 제32회)

나. 부드러운 명희의 젖가슴이 문선의 가슴에 다힐 때, 그리고 명희의 두 팔이 자기의
목을 꼬러안고 그 얼굴이 자기의 얼굴을 스쳐서 자기의 어깨에 언쳐졌을 때, 문선
은 육체의 촉감이라는 것을 감각하였다. (연재 제33회)

다. 말을 일흔 두 사람은 무언중에 굳게 껴안는다. 유백색(乳白色) 운무는 포용한 두 사람의 몸을 찬찬 감어준다. 그리고 기쁜 산간을 울리고 흘러나리는 냇물소리는 마치 그들의 사랑의 행진곡을 반주하여 주는 것만 가깝다.(연재 제40회)

라. 중년신사는 나가는 옥련의 뒷모양에 시선을 던진다. 양장한 옥련의 정돈된 몸집은 '떼리게-트'한 육체의 곡선을 의복 위에 폭로시키고 있다. 옥련이가 엽방으로 사라진 뒤에도 그는 시선을 문에 박고 있다. (연재 제82회)

가)는 두 사람이 걷는 뒷 모습을 묘사한 내용이고 나)는 금강산 여행중 위태롭게 넘어질 뻔한 명희의 몸을 문선이 어쩔 수 없이 받아 안는 장면이다. 두 남녀는 금강산이라는 대자연 속에서 피할 길 없는 육체적 접촉을 처음으로 경험하는 순간인 셈이다. 다)는 잠을 이루지 못한 문선과 명희가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장면으로 이른 새벽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계기가 되는 순간이다. 이후로도 신만물상 천녀화장실 앞에서 등 포용의 순간들이 환상적으로 반복되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정신적으로 심화시켜가는 계기가 된다.

라)는 중년신사의 노골적인 성욕을 암시하는 묘사로서 '곡선을 폭로시키고' 있다는 표현이 독특하다. 이러한 감각적 묘사는 단행본으로 간행되었을 때 더욱 더 치졸하게 육감적으로 채색되었던 데 비하면 훨씬 소박하고 아름답기조차 하다. 특히 다)와 같이 금강산 절경을 배경으로 운무와 맑은 시냇물이 조화된 포용의 모습은 두 남녀의 결합을 실로 완벽하게 꾸며주어 선남선녀의 이상적인 만남으로 느껴질 정도다.

이런 장면이 많은 독자들에게 선망과 찬탄의 감동을 자아냈을 것이고 <순애보>의 애정밀도를 잊혀지지 않는 심미감으로 충만시켜 줄 수 있었으리라 여겨진다.

<순애보>에서 느끼는 공감의 요소를 '환상적인 배경 설정'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작품은 이 감각적 문체에 걸맞도록 수려한 자연경관을 무대 배경으로 아름답게 꾸며진다는 특징을 지닌다. 더구나 수려한 금강산의 절경, 원산 해수욕장 등 배경묘사는 미문의 문체와 조화되어 낭만적인 분위기를 낳는다. 이 점은 연애소설로서 큰 강점이며 한 좋은 전형이 된다.

<절레꽃>이 혼인을 앞 둔 청춘남녀간의 애정갈등을 그린 근대적인 '혼사장 애담'의 변형이라면, <순애보>의 연애의 가치는 '혼사장애담'으로서의 의미를 벗어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연애갈등의 심리적 복선도 <절레꽃>에 비하면 그 정도가 약하지만 청춘남녀가 등장하는 배경이 감각적으로 그들의 젊음과 잘 어울리게 묘사되고 있는 점이 연애소설로서 뛰어나다. 이는 박계주가 금강산 여행 중 작품을 구상했다고 하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점⁷⁰⁾이다. 다음 대목을 보자.

비로봉을 향하여 구룡연을 출발하기는 그날 오후 두 시경이다. 구룡연 찻집에서 점심을 먹고 한 시간 동안이나 폭포수 가에서 놀다가 사진까지 찍은 뒤에 오후 두 시에야 다시 걷기 시작했다. 온정리에서 구룡연까지는 평지와 다름없지만 구룡연에서부터 비로봉까지의 해발 일천 육백 삼십 팔 미터는 전혀 오르는 산길이다. 쇠로 만든 높은 사다리를 기어올라가 비사문이라는 천연으로 뚫린 돌문을 빠져 나가면 안개가 자욱한 산길이 나타난다.(78 쪽)

정비석의 금강산 기행 수필인 '山情無限'을 연상케 하는 이러한 기행문체는 대자연의 수려한 경관 속에서 두 남녀의 부딪침을 실로 낭만적이고 환상적으로 인식케 한다. 시끌벅적한 도심지 속에서라면 청춘남녀의 만남이 기존의 도덕관념 속에서 세속적이고 비리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그러나 <순애보>는 비로봉, 신만불상의 절경을 배경으로, 혹은 끝없이 펼쳐진 인적없는 백사장을 배경으로 청춘남녀의 만남에서 더욱 숭고하고 우아한 심미감을 자아내게 하고 있다고 하겠다. 산이나 바다는 배경으로써 공감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금강산에 남아있는 비바람에 스친 비석이나 절, 담, 무덤에 얽힌 이야기들은 먼 과거의 환상적 공간으로 두 남녀를 인도함으로써 현실을 초월한 낭만과 신비감 속에 빠져 들게 한다.

마의태자 묘를 지나 용마석 산장에 왔을 때 역사적 사실에 비감해 한다든가 운림폭포에서 옛 시조를 읊는다든가 함으로써 인생무상의 감동에 젖음으로써 두 사람은 서로를 다정다감하게 의식하게 된다. 단 한번의 접촉(그것도 포옹정도에

70) 민병덕(1988), 前掲書, p. 162.

불과한)이 마음의 정조를 잃은 것이 된다고 확신하는 효과를 그러한 분위기와 배경이 도와줌으로써 갖게 된다. 이러한 사랑은 남녀간의 현실적 사랑을 분명히 왜곡하고 있음에도 폭발적 인기를 끌었던 것은 무슨 까닭인가? 그것은 처음에서 밝혔듯 종교의 설득력이었다. 현실과 합리, 계산적인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희생과 봉사라는 거룩한 실천만으로 감지할 수 있는 크나 큰 삶의 공감대, 이것이 <순애보>를 감각적이면서 숭고한 사랑의 이야기로 남게 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로고스적인 절대애를 에로스적인 애욕과 병치시켜 보여줌으로써 에로스적인 애욕이 종교적으로 승화되는 효과는 이른바 숭고미에 해당한다. 최문선과 명희의 사랑을 지켜보는 독자는 그들에 비해 낮은 자리에서 그들의 행위를 우러러보게 되는 찬탄과 선망과 숭고를 깨닫는 즐거움을 갖게 되는 것이다.

독자는 작품 속에 내재된 주인공들의 존재와 행위를 자신의 보편적 평균체험에 비추어 우월이나 열등과 같은 가치지향성을 판단하게 되고, 이 판단은 체험적 평형성에 자극을 가하게 된다. 주인공 문선과 명희의 사랑의 행위가 가치 상향적일 때 독자는 이상과 현실초월성을 주인공들의 행위를 통해 얻게 되므로 서사주체가 되는 등장인물들은 자연 독자의 선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⁷¹⁾ 이 점이 연애소설이 애욕문제를 다룬 비판적인 현실주의 소설이나 성소재의 포르노소설과 다른 점이다. 김동인의 <감자>에 나오는 복녀와 왕서방의 관계를 놓고 두 사람의 관계를 진정한 사랑이라고 생각할 독자는 별로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거기서 둘 사이에는 '돈'을 매개로 한 추악한 현실적 구조가 놓여 있음을 감지하게 되도록 씌어 있기 때문이다.

3) 修辭의 斬新性

<순애보>의 현대적 감각은 해수욕장의 배경설정에서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구태의연한 묘사를 거의 벗어난 참신한 비유적 표현과 잦은 외래어 사용에서도 독자들은 신선한 현대감을 만끽하게 된다. 다음을 보자.

71) 김중신(1994), 前揭書, p. 60.

o. 몽롱하던 초생달도 구름이 벗겨지자 달빛은 해란강(海蘭江)물결 위에 떨어져서 금파은파를 일으켜 주고 잊었다.(연재 제14회)

o. 달이 계류(溪流)에 떨어져 부스러진다. 그 부스러진 수많은 구슬들이 돌돌 소리를 내며 굴러간다.(82면)

이와 같은 묘사의 참신함은 문선과 인순의 대화 등 남녀간의 대화 수준에서도 드러난다.

「저어 제 청을 하나 들어 주시겠어요?」

「무슨 청인데요?」

「글쎄 무슨 청이던 들어 주시겠느냐 말씀이에요.」

「들어 드릴만한 청이면 들어 드리고, 못 들어 드릴 청이면 못 들어 드리는 거죠」

「선생님의 피의 형은 수학형이 아니세요?」

「복수로군요?」

「친만예요」

「.....」

「저어 지금 그리시는 그림을 어디 출판하실 건가요?」

「놀리지 마십시오」

「놀리다뇨」

「영광스러운 말씀을 하시니 말입니다.」

「출품은 어느 특권층만 하는 건가요?」

「그럴 수준에 못 올랐으니까 말이지요」

「겸손으로 예복을 삼지 마세요」

「.....」

인순이 문선의 그림을 얻어 볼까하는 의도로 전개되는 대화의 장은 두 페이지를 넘어 이어진다. 대화가 자연스러운 남녀간의 호기심을 깔고 있는데다 ‘피의 형은 수학형’이라든가, ‘겸손으로 예복을 삼지’ 말라는 등 윗트있는 참신한 대화

로 이끌어 가기 때문에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하다. 이처럼 설명이나 해설보다 청춘남녀의 대화에 의해 진행되어 가는 점, 대화와 지문의 동시대적 감각과 표현은 <순애보>의 대중 공감적 폭을 넓히는 데 충분히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독자공감을 얻게 된 표현의 요인으로 문체의 참신함 외에 다양한 新語, 외래어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순애보>에서는 다음과 같은 외래어들이 사용되어 세대에 알맞는 현대감각을 부여하고 표현을 신선하게 하는 효과를 노리고 있다.

이즐, 캔버스, 보우트, 퀘스천마크, 미스, 파렛트, 라이프보이, 스프링보드, 브리지, 디파트, 풋볼, 플랫폼, 에세이, 심포니, 비치볼, 호텔, 비치파라솔, 비치캡, 디다트센트, 테니스코트, 베이비골프, 캠프, 텐트, 룩색, 수프, 비프스테이크, 토스트, 에그프라이, 레지걸, 핸드백, 보스턴백, 마이너스, 제로, 피켈, 아이로니, 커피, 알미늄컵, 웨딩마치, 로터리, 스타디오, 스테이지, 스페이스, 아스팔트, 사이드, 드라이브, 스마트, 벨, 라이터, 레이디, 레이디퍼스트, 댄스홀, 카무플라즈, 히스테리, 에텔, 인테리, 넌센스, 드릴, 허즈번드, 엔쥘이, 카펫, 에고이스트, 캐디, 개런티, 콩쿠르, 브나로드, 엘레지, 기타, 셔츠, 러닝 등

마지막으로 <순애보>가 갖는 미적 특징으로 들 수 있는 점은 앞서 전개된 유사한 장면이 반복되기도 하다가 결말에 가서 서두 부분이 다시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와같은 구성방법은 작품의 인상을 강화하는 테크닉으로 보여진다. 정비석은 이런 구성의 특징에 대해 '전편을 총체적으로 지배할 만한 자연풍경이나 환경을 전개시켜서 위선 작품의 분위기를 농후하게 醸成하는 수법'⁷²⁾에 해당한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 모든 공감적 장치와 기법을 <순애보>는 희생적이고 박애주의적인 사랑의 실현이라는 무거운 의미에 귀결시킨다. 결국 이 작품은 감각적인 연애모티프의 소설이지만 독자인 심미적 주체로 하여금 가치 상향적 행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사고에 의해 선망심리, 모방심리를 갖게함으로써 대리 체험 효과에 의

72) 정비석(1952), 「소설작법」, 선문사, p. 54.

한 감동을 느끼도록 유도한다고 하겠다.

이상과 같이 <순애보>는 <찔레꽃>보다도 연애소설로서 '혼사시련담'의 전통을 충실히 계승하고 있는 만큼 연애소설로서의 공감성이 더 강하다고 하겠다. 즉 <순애보>는 전통적 혼사장애주지를 근대적으로 승화시켰고 여성에 대한 관능적 묘사에 능숙한데다 금강산, 원산해수욕장 등 수려한 자연경관의 무대 설정의 환상적인 분위기, 감각적인 현대적 문체와 풍부한 외래어 사용 등으로 독자의 공감대를 크게 확보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러한 <순애보>에 대한 작품의 공감성이 <찔레꽃>처럼 동정이나 감계의 느낌보다는 통속적으로 숭고한 선망적 공감을 주는 데 성공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찔레꽃>보다 전근대적인 연애소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V. 結 論

지금까지 신문에 연재되었던 장편소설 가운데 농촌귀향소설인 이광수의 <흙>, 심훈의 <상록수>와 연애소설인 김말봉의 <짚레꽃>, 박계주의 <순애보>를 선정하여 독자 공감의 요소를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이 글에서는 위에 선정된 작품을 통속적 대중소설로 보고, 당시 신문연계소설의 특징과 관련하여 통속소설과 대중소설의 특성을 살피고 1930년대 당시와 현재의 독자환경을 바탕으로 하여 독자 수용자 입장에서 작품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하였는데 그 논의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용자 중심의 작품해석은 수용자의 일방적인 생각만을 중시한다기 보다는 비교적 수용자의 입장을 좀 더 고려해야 하는 쪽에 치중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문학연구에 많이 적용되었던 작품론 중심의 선행 업적에 수용미학적 관점을 가미하여, 문학 작품이 '작가-텍스트-독자'의 상호소통 속에 존재하는 것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춘 보완적 연구방법을 적용했다.

선정된 이 작품에 대한 당대와 현재의 독자들의 반응을 검토하고 결과를 추출할 수 있었다. 작품에 나타난 독자 공감의 요소를 찾아냄으로써 문학 작품에 대한 다양한 해석 방법을 적용해 보고자 했다. 이 방법은 앞으로 작품연구에 보다 다원적이고 객관적인 의미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리라 생각한다.

둘째, 농촌귀향소설 가운데 <흙>과 <상록수> 두 편을 대상으로 각각 '한 시골뜨기의 영웅적 변신'과 '농촌계몽의 귀감'의 공감적 틀로 분석하였다.

'한 시골뜨기의 영웅적 변신담'으로서의 <흙>은 원래 계몽의식을 확대를 목적으로 창작된 소설이었으나, 계몽의 의미가 퇴색한 점을 지적하고 이 작품의 공감 요인은 무엇보다도 신분상승적 출세와 농촌시혜자로서의 영웅적 변신이 가장 독자 공감적인 요소라고 보았다. 또한 <흙>이 대중적 공감대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은 영웅적 인물로 변신한 허승을 중심으로 한 연애삼각관계의 갈등 때문으로 보았으며, 그런 소설적 장치를 바탕으로 한 주인공의 주제의식이 독자들로

하여금 흥미와 숭고한 느낌으로서의 선망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흙>이 농촌귀향소설로서 계몽을 모티프로 하였음에도 계몽의 의미가 퇴색한 것에 비해 <상록수>는 농촌귀향소설로서 계몽의 여러가지 귀감이 되는 작품이었다. <상록수>는 작품 외적으로는 《동아일보의》의 브 나로드 운동의 일환으로서 실시하던 농촌계몽을 의식하여 적시성을 띠고 현실적 소재를 작품화했다는 점과 작품 내적으로는 소영웅주의적 진보적인 인물의 숭고성, 기독교적 박애정신과 희생, 청춘남녀 애정의 모티프로서의 감각성, 선구자 의식의 고취 등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폭넓은 독자 공감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농촌계몽이라는 시대적 현실적 요청과 농촌계몽을 통하여 정신적으로 융합할 수 있었던 지고한 사랑, 여주인공 영신의 장렬한 죽음으로 인한 소설적 장치가 우아하고 숭고한 느낌을 동시에 불러일으키면서 독자들에게 선망성을 갖도록 하는 효과를 잘 살렸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론 그렇다고 <상록수>가 <흙>이 가진 통속성을 전혀 갖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사랑에도 적극적인 영신과 동혁과의 연애담은 즐거리를 이끌어 가는 중요한 핵심으로 작용되고 사뭇 감각적 장면의 노출도 독자적 공감대를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흙>과 <상록수>는 의도적 계몽 위에 애정모티프를 입힌 당의정(糖依錠)의 효과를 지니게 됨으로써 정도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통속성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겠다.

셋째, 지금까지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연애소설들의 독자 공감의 요소를 살펴 보았다. <절레꽃>과 <순애보>의 화소를 분석하여 그 공감적 요소를 분석하였다.

<절레꽃>에 나타난 공감적 요인은 연애 통속담으로서의 의미, 사랑의 착오극으로서의 오락성, 근대적 연애 실패담으로서의 독자의 동정심 유발과 독자 감계의 효과, 빈부의 극단적 설정으로 인한 낮선 체험의 심미감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였다. 이 작품은 연애모티프 소설로서의 오락성과 동시에 근대적 자각에 의한 동정과 감계의 효과를 거두는 데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절레꽃>은 당대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꾸준히 독자들에게 의해 공감대를 넓혀 왔던 것이라 할 수 있

다.

다음으로 <순애보>의 공감적 요인은 <찔레꽃>에 비해 더 다양했다. 즉 <순애보>는 전통적 혼사장애주지를 근대적으로 승화시킨 연애모티프 소설로서, 세속적인 연애에 그치지 않고, 숭고한 정신적 의미를 가미시킴으로써 낭만적이고 환상적인 연애소설로서 공감대를 넓였으며, 여성에 대한 능숙한 관능적 성묘사와 환상적 배경 등 일반 통속소설에서 찾아 볼 수 있는 표현, 감각적인 언어와 외래어 등 참신한 현대적 문체의 적절한 사용 등으로 연애소설로서의 전형적인 분위기를 제공하면서 독자들에게 많은 공감을 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순애보>에 대한 작품의 공감 요소가 <찔레꽃>처럼 동정이나 감계의 느낌보다는 선망의 느낌을 갖게 한다는 점에서 해피엔드식의 연애소설로서 오히려 <찔레꽃>보다 전근대적인 연애소설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이 연구는 1930년대 소설사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객관성을 확보해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세기 말, 21세기의 문학에서의 수용자 중심의 사고를 포용할 수 있는 준비작업 단계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듯 독자 반응과 독자 공감 요소의 연구는 1930년대 장편소설의 연구에 새로운 지평을 열어 줄 것이다. 우선 1930년대 장편소설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연구대상 작품에 대한 해석의 다양성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지금까지 문학 연구의 관심권 밖으로 밀려나 있었던 많은 장편들을 새롭게 연구하여 문학사의 한 편에 자리잡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글의 논의 대상 작품이 4편의 통속적 대중소설에 불과하므로 통속적 대중소설의 전모를 밝혀내는 데는 부족함이 있고, 독자호응도나 독자 공감의 요인을 중심으로 소설 작품을 이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음을 부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당대 독자들의 호응도나 공감 요인의 정도 및 독자 환경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결론을 맺는 것은 논리성 부족의 오류를 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천차만별인 독자의 성격을 종합하는 연구 결과가 선행되었을 때 보다 객관적인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으므로, 그 선행 연구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은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전제해 둔다.

<參 考 文 獻>

1) <資料>

<흙> (혜원출판사, 1995).

<定本 常綠樹> (을유문화사, 1974).

<찔레꽃> (문학출판사, 1980).

<殉愛譜> (지성출판사, 1978).

1930년대 《동아일보》, 《조선일보》, 《조선중앙일보》, 《매일신보》

2) <單行本>

고은 외(1994), 「책 어떻게 읽을 것인가?」, 민음사.

구인환 외(1995) 「한국 장편소설 연구」, 삼지원.

국어국문학편찬위원회(1995), 「국어국문학사전(자료편)」, 한국사전연구소.

김대행(1992), 「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사상사.

김미란(1984), 「고대소설과 변신」, 정음문화사.

김윤식·정호웅 편(1988), 「한국근대리얼리즘 작가연구」, 문학과 지성사.

김윤식(1978), 「한국근대문학의 이해」, 일지사.

김 준(1990), 「한국농민소설 연구」, 태학사.

김치수(1983), 「문학사회학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김현, 김윤식(1984), 「한국문학사」, 민음사.

김현(1983), 「한국 문학의 위상」, 문학과 지성사.

리용필(1993), 「조선신문 100년사」, 나남신서.

문성숙(1994) 「개화기 소설론 연구」, 새문사.

박성봉(1994), 「대중예술의 이론들」, 동연.

_____ (1995), 「대중예술의 미학」, 동연.

- 서광운(1994), 「한국신문소설사」, 해돋이.
- 송백현(1985), 「한국근대 역사소설 연구」, 삼지원.
- 신경립(1983), 「농민문학론」, 온누리.
- 신상성(1987), 「1930년대 한국가족사소설론」, 「한국근대소설론」, 형설출판사.
- 아놀드 하우스, 백낙청 역(1980), 「문학과 예술의 사회사」(근세), 창비신서
- 염무웅(1982), 「1930년대 문학론」,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 이대규(1995), 「한국 근대 귀향소설 연구」, 이회출판사.
- 이두현(1979), 「한국연극사」, 보성문화사.
- 이상섭(1980), 「문학연구의 방법」, 탐구신서 57호.
- _____ (1984), 「문학비평용어사전」, 민음사.
- 이선영 편(1990), 「1930년대 민족문학의 인식」, 한길사.
- 이재선(1981), 「한국문학의 해석」, 새문사.
- _____ (1983), 「한국현대소설사」, 흥성사.
- 이주형(1995), 「한국근대소설연구」, 창비신서 142호.
- 임형택·최원식 편(1982), 「한국근대문학사론」, 한길사.
- 장덕순(1982), 「구비문학개설」, 일조각.
- 정한숙(1977), 「현대 한국소설론」, 고대출판부.
- _____ (1979), 「소설기술론」, 고대출판부.
- _____ (1981), 「현대 한국작가론」, 고대출판부.
- _____ (1994), 「현대소설작법」, 장락.
- 정호웅 외(1991), 「장편소설로 보는 새로운 민족문학사」, 열음사.
- 조남현(1983), 「소설원론」, 고려원.
- 조동길(1992), 「한국현대장편소설연구」, 국학자료원.
- 조동일(1987), 「한국소설의 이해」, 지식산업사.
- 차봉희(1984), 「수용미학」, 문학과 지성사.
- _____ (1992), 「독자반응비평」, 고려원.
- 최혜실(1992), 「한국 모더니즘 소설 연구」, 민지원.
- 한승욱(1989), 「한국현대 장편소설 연구」, 민음사.
- 한용환(1992), 「소설학사전」, 고려원.

3) < 論文 >

- 강영주(1986), “한국 근대역사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권희돈(1988), “「無情」의 수용미학적 연구” 제31회 전국국어국문학연구발표대회 발표논문.
- 김동환(1993), “1930년대 한국 장편소설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외곤(1989), “1930년대 한국현실주의 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중신(1994), “서사텍스트의 심미적 체험에 구조와 유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나병철(1990), “1930년대 후반기 도시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민병덕(1989), “한국근대신문연재소설연구”,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박종홍(1990), “일제강점기 한국역사소설연구”,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 백광희(1979), “1930년대 소설문학의 특성”,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서경석(1990), “1920-30년대 한국경향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춘호(1980), “한국농민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오양호(1981), “한국농민소설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강언(1987), “1930년대 모더니즘 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대학원.
- 이대규(1985), “1930년대 한국가족사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 이명재(1983), “식민지시대 문학의 특성연구”,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대학원.
- 이주형(1983), “1930년대 장편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임영환(1986), “1930년대 한국농촌사회소설연구”,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장성수(1990), “1930년대 경향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조남철(1985), “일제하 한국 농민소설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조달옥(1980), “1930년대 소설의 기법연구”, 석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_____(1990), “1930년대 후반기 장편소설 연구”,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최갑진(1993), “1930년대 귀농소설 연구”,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최동욱(1982), “1930년대 한국소설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Abstract>

A Study on Reader's Sympathetic Element of Popular Novels in 1930's

- Focusing on 'Earth' 'An Evergreen Tree'

'A Wild Rose' 'Pure Love Story' -

Beak, Woon-Joo

Korean Language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Moon, Seong-Sook

This study is aimed to get the same sympathy which appeared in a farm homecoming novel and a love story among long novels in 1930's. There have been a few research literary works ; <Earth> by Ch'unwon, <An Evergreen Tree> by Shim-Hoon, <A Wild Rose> by Kim, Mal-Bong, <Pure Love Story> by Pack, Gye-Ju.

With the times, it was a very hard circumstance under the last term of Japanese imperialism in 1930's. But there were times that had developed quantitatively or qualitatively in novel history.

The study trend until now in the variety of long novels in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6

1930's, exposes to get the writer's intention, the theme and the meaning in the times of the works. Especially the study trend from the middle period in 1980's to the first period in 1990's exposes the realism literary theory totally and there have been some problems with the principle of equity in the literary studies.

Although the long novel study in 1930's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writer's thought and the works variously and deeply, I had an eye for the study about the reader's receptive phenomena and I wanted to study a unique esthetic sense of the long novel in the sympathy of readers.

I analyzed two novels ; <Earth> and <An Evergreen Tree> a sympathetic frame about country homecoming novels ; A country bumpkin's heroic transformation and a model of farm enlightenment.

First of all, I thought that the sympathy of <Earth> as a country bumpkin's heroic transformation was reader's sympathy of high standing success in life and heroic transformation as a country leader.

I also thought that public sympathetic bond to get a public the complication of <Earth> was triple love affair in the middle of the heroic person Heoseung who became a hero.

<Earth> as a country homecoming novel had a motive for enlightenment but the meaning of enlightenment is become weak.

<An Evergreen Tree> as a country homecoming novel was the example of the work for model of enlightenment in various ways.

<An Evergreen Tree> obtained the desired results that raised

the envy about the subject of the narration ; an intellectual of small heroism as a country homecoming novel, Christian charity and a self-sacrificing service, united supreme love spiritually for a farm enlightenment, heroic death of Yeong-Sin as a heroine and so forth.

As a matter of course, <An Evergreen Tree> and <Earth> had a little conventionality.

Love story between positive Yeong-Sin and Park Dong-Hyunk was the core of the plot and disclosure of sensual scene also could contribute to get sympathy formation.

I took a good look at unique sympathy quality which was hardly studied until now. The sympathetic factors were analyzed through <The Wild Rose> and <Pure Love Story>.

The sympathy factors in <The Wild Rose> are discussed as follows ; the meaning of conventionality story in love, the effect of the reader's emotion and the sympathy of the reader as a modern love failure story, amusement quality as a mistaken drama of love, an aesthetic sense of unfamiliar experiences from the setting an extreme setting wealth and poverty.

Because of these factors, <The Wild Rose> has been popular by the readers until now. Secondly sympathetic factors in <Pure Love Story> were more various than <The Wild Rose>. Namely <The Wild Rose> sublimed modernisticly the universal knowledge of the difficulty of marriage .

Some will say that it may have unique sympathy quality

strongly will say that through skillful carnal description scenery the setting of natural in graceful Mt. Keumkang and Wonsan Beach, modern literary style, misuse of foreign language. This sympathetic quality in <Pure Love Story> has the feeling of envy than the compassion or the deep emotion in <The Wild Rose>.

After all I interpreted that it was premodern love story rather than happy end love story in <The Wild Rose>.

No matter what there were active the discussions about the long novel in the 1930's and a lot of long novels were popular at a serial newspaper publication of the long novel status in 1936, I indicated the study trends to grope for reader's interest and concerns were very insignificant circumstances in the study method or the choice of an object. I would like to grope for the object direction at the long novel study in 1930's. Above all I thought that the reader's phenomenal study could give us various points of view and an objectivity about novel history in the 1930's. Also I would think it a preparatory stage viewpoints to comprehend the thought of receptive on literature in the end of 20 century and 21 century.